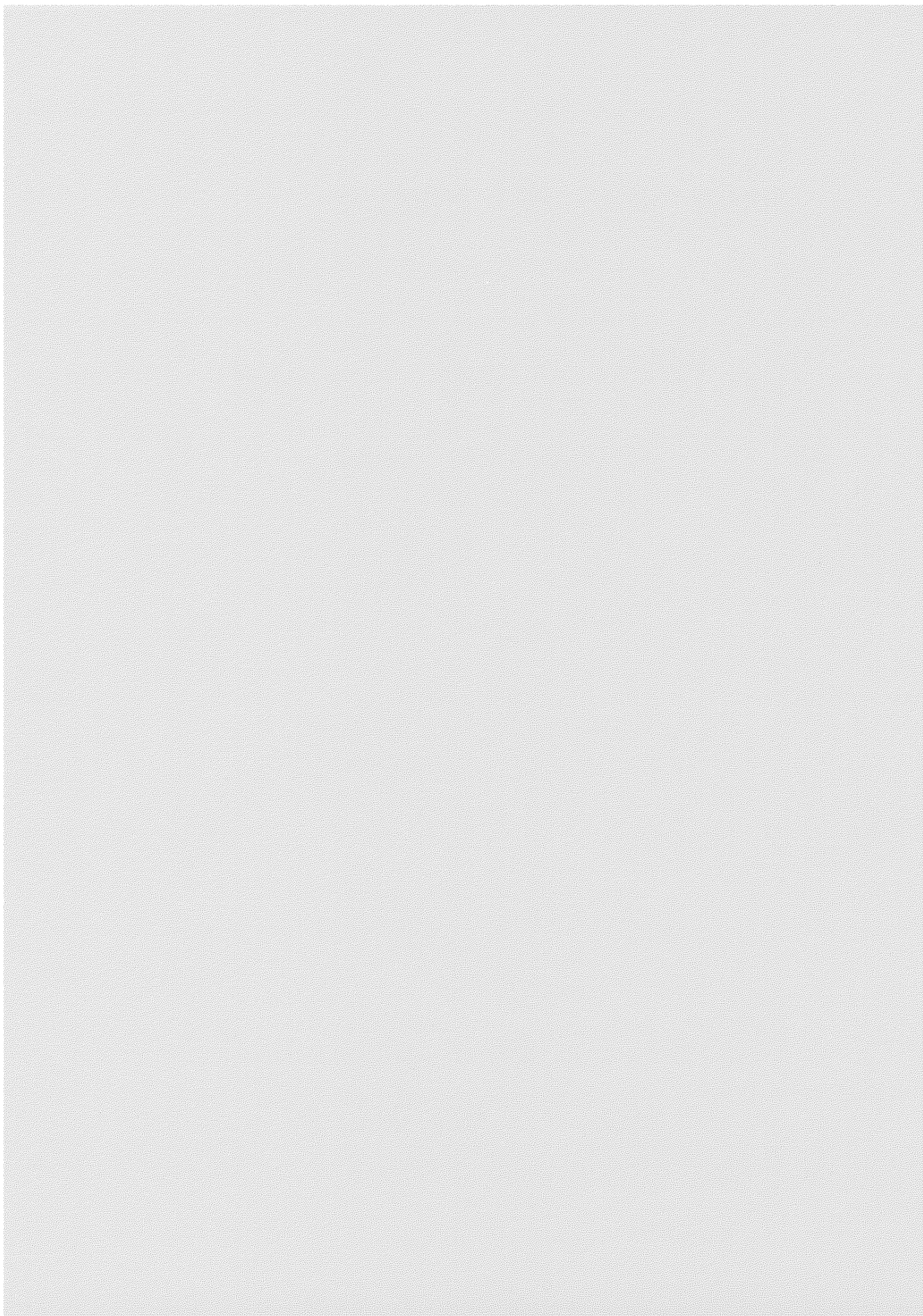


第153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會 議 錄

(2003.5.26. ~ 5.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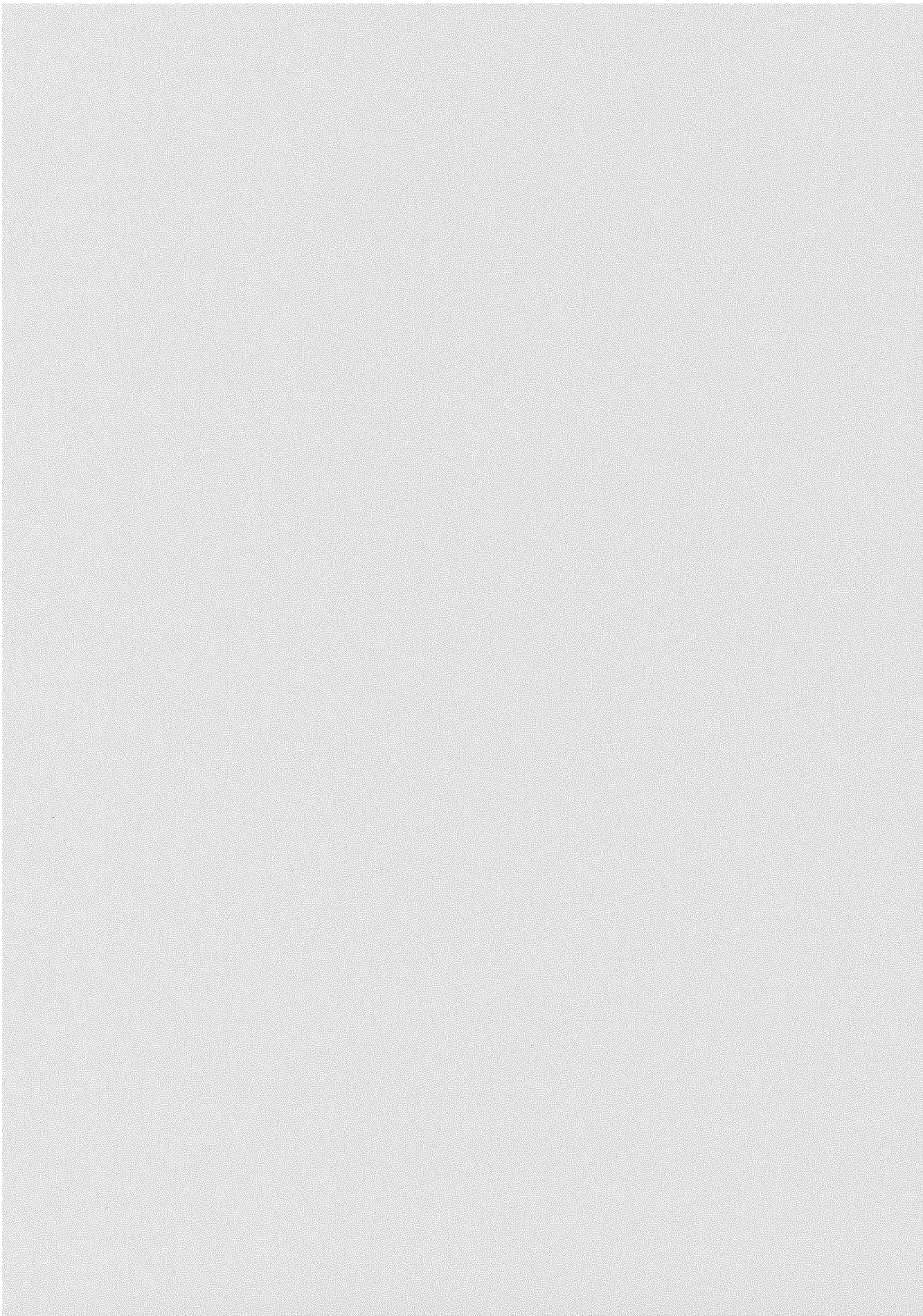
忠清北道教育委員會



第153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I. 개회식	241
II. 제15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43
III. 제15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47
IV. 제15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267
V. 부 록	
1. 의사일정안	331
2. 서면답변서	333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3년 5월 26일 (월요일) 15시 01분

開會式順(第153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대한경례
3. 폐식

(사회:의사담당 김영구)

(15시 01분 개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본 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 의사담당 김영구

지금부터 제 15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15시 03분 폐식)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3년 5월 26일 (월요일) 15시 03분

議事日程 (제1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153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153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남훈 위원 외 6인 발의)

(15시 03분 개의)

● 의장 이상일

그러면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과장 발언대로 나옴)

● 의사과장 김용환

의사과장 김용환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3년 5월 15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을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남훈 교육위원 외 전체 위원으로부터 교육위원회 집회요구가 있어, 2003년 5월 17일 공고 제2003-5호로 제153회 충청북도교육위

● 의장 이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집행청으로부터 김천호 교육감님께서 전국 시·도교육감회의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과보고

[제153회-제1차 본회의]

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회기 의결안건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5일 제1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신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단설유치원설립계획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안,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동일자로 집행청에 이송하였으며,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 5월 9일 충청북도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제153회 임시회 회기 중에는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이상일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53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15시 06분)

● 의장 이상일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3회 임시회 회기는 5월 26일부터 5월 29일까지 4일간으로 하여 오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처리하시고, 5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5월 28일은 서해수련원 공사 현장 방문을 위하여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며, 5월 29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집행청으로부터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15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5월 26일부터 5월 29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3.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 구의건

(15시 07분)

● 의장 이상일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위원을 대표하여 김남훈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훈 위원 발언대로 나옴)

● 김남훈 위원

김남훈 교육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본 위원 외 6명의 교육위원 전원이 발의한 것으로 제안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9조 및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며, 출석일시는 제1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는 5월 27일 오전 10시와 제3차 본회의가 열리는 5월 29일 오후 2시가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은 충청북도교육감과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교육감 및 같은 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국장, 담당관, 과장급 관계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출석요구 이유는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훈 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이상일

김남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남훈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즉시 집행청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5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고규강 위원님과 김남훈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5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폐회)

[제153회-제1차 본회의]

0 출석위원 : 7명

의장 이상일, 부의장 고규강,
위원 김남훈, 성영용, 송대현, 이기수,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13명

부교육감 김용호, 교육국장 반창남,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초등교육과장 정무, 중등교육과장 임흥빈,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 이기석,
총무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의사일정안(별첨 1)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3년 5월 27일 (화요일) 10시 03분

議事日程 (제1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

附議된 案件

1. 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의장 제의)

(10시 03분 개의)

● 의장 이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집행청으로부터 안용균 기획관리과장과 조례환 학교운영지원과장께서는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관계로, 임홍빈 중등교육과장께서는 교육인적자원부 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를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

● 의장 이상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행정에관한 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교육행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는 의석 순서대로 하되, 제가 호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규칙 제23조에서 20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

문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질문 하시는 내용은 미리 제출하신 질문요지의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5월 29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으니 여러 위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고규강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강 위원 발언대로 나눔)

● 고규강 위원

고규강 위원입니다.

교육감 취임 1년 동안 자율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생명경영 품격행정을 펼쳐 충북교육이 많은 질적 변화와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데에 대하여 김천호 교육감님을 비롯하여 교육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교육감님께서서는 2002년 9월 3일 제144회 임시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운영하여 긍지를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과 원칙과 정도를 준수하는 정의로운 행정을 펼치겠으며, 충북교육 발전을 위한다면 어떠한 충고와 비난도 검허하게 수용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은 새롭게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화 없는 교육, 성장이 없는

교육은 진정한 교육이 아니라 사료됩니다.

버스카 글리아는 변화를 위한 조건으로, “첫째, 부족과 결핍, 잘못된 점을 느껴야 한다. 둘째, 부족과 결핍, 잘못된 점을 메우려는 결의를 가져야 한다. 셋째, 변화를 하기 위한 직접 행동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전국 부의장단협의회와 교육자치특별위원회를 거의 매월마다 참석하였을 때 타 시·도 위원들이 충청북도는 왜 초등에는 직속기관장이 없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타 시·도도 충북과 동일한 줄만 알고 처음에는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후 충북을 제외한 15개 시·도의 시·군 지역교육청 교육장 및 도교육청 직속기관장 임용실태에 관한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15개 시·도는 일정 비율로 초·중등 출신 교육장으로 배치하였고,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를 제외한 8개 도는 초·중등 출신별 일정 비율로 시 지역에 교육장을 배치하였고, 직속기관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충청북도 초·중등학교 수는 245 대 200, 학생 수는 12만 9,170명 대 11만 3,633명, 교원 수는 5,246명 대 6,939명으로 학교수와 학생수는 초등이 많고, 교원수는 중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본 도만이 시지역 교육장과 직속기관장에 초등기관 기관장이 없고, 교육장과 직속기관장 배치도 초·중등 5 대 8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헌법 제2장제11조제1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제144회 임시회 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적 소신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첫째, 충청북도 시·군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 배치에 대해, 왜 충청북도만이 교육장과 직속기관장 배치에 있어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특별한 사정이라도 있는지? 교육감님께서서는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공정하지 못하다면 차후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타 시·도와 같이 초·중등 공평하게 격년제로 배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어촌교육 진흥지역 학교 지정에 대해 농진지역 학교지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농촌지역 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하고, 의료문화 시설이 열악한 지역학교, 학급규모가 작아 교사들의 업무부담이 과중한 학교, 교사들이 전보를 기피하는 학교를 심의기준으로 초·중등교육과에서 장학관, 장학사가 예비 선정하여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8년 5개월이 지난 오늘의 농촌지역 학교 여건은 학교규모, 교통 등 농촌지역 학교여건이 많이 변화되었고, 농진학교가 아닌 농촌 소규모학교는 교원들이 사무부담을 이유로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농촌 소규모학교는 신규교사들이 주로 발령됨으로써 1년 정도 근무하다가 전원 내신을 내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학교교육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이나 학부모, 지역사회가 교원과 학교를 불신임하게 되는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농진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이 있는 학교에 대하여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규강 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이상일

고규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남훈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훈 위원 발언대로 나옴)

● 김남훈 위원

교육위원 김남훈입니다.

김천호 교육감 취임 1년 동안 젊은 생각 젊은 교육으로 교육 및 각 분야에서

[제153회-제2차 본회의]

갈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해 온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교육감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몇 가지 행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통학버스 제공입니다.

홍덕, 서원, 주성고등학교 통학버스 제공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위 3개 고등학교에 유독 통학버스를 제공하게 된 사유는 무엇이며, 둘째, 통학버스 제공에 따른 학부모와의 합의내용과 그에 따른 경비지출 내역과, 셋째, 3개 고등학교와 유사한 사항이 앞으로 재발될 경우 이에 따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촌 소규모 학교 급당 학생수 조정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촌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농촌소재 소규모 학교의 존폐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촌소재 학교는 학교로서의 의미 이상으로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버팀목이 되어 온 지 오래인데 학생수 감소로 분교 내지는 폐교로 이어지고 농촌인구 감소와 이농을 부추기고 농촌을 더욱 황폐화시키고 있는 실정에 학급당 학생수를 하향 조정하여 6학급 수준 독립학교로 존속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관리과 공문 81414-198호 2001년 3월 12일자 공문에 예고된 내용과 같이 시행할 계획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시행을 하신다면은 2004학년도부터 실시하실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시·군별 복식학급 현황을 시·군별 학교명, 학급수, 학년별 학생수에 대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2)

(끝에 실음)

세 번째, 체육지정종목 운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난 2002년 행정사무감사시 질문드렸던 사항입니다.

답변에서 2002년 9월 1일자로 체육지정종목을 전면 재조정하였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이 학교 현장에서 조사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2000년 9월 1일 학교별 지정종목에서 신규 지정종목 학교수 지정종목 취소 학교수를 시·군별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초등 6학급 이하 중·고등학교 3학급 이하 단체종목 현황을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지정종목 운영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고, 2항에서 말씀드리는 문제와 2002년 9월 1일 이후의 지정종목 현황을 저한테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2)

(끝에 실음)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남훈 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이상일

김남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영용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용 위원 발언대로 나눔)

● 성영용 위원

성영용 교육위원입니다.

김천호 교육감님께서 젊은 생각, 젊은 교육이라는 참신한 바탕생각을 가지고 충북교육을 이끌어 오신 지 1년여의 시간이 지났으며, 그 동안 학교현장에서 많은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충북교육 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교육행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나간 회기 중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

에 대하여 집행청을 통하여 “추후 추진하겠다.”거나 “교육인적자원부에 개선을 건의하겠다.” 혹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등으로 답변해 주신 사항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02년 10월 21일 제146회 정기회 제4일차 감사소위원회에서 본청 행정사무감사시에 교육감께서는 찾아가는 교육감실을 운영하면서 정책적인 현안문제가 있으면 교육위원회나 해당 지역 교육위원님들과 협조해서 처리해 달라는 본 위원의 주문대로 가닥을 잡아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동안 그렇게 처리한 실적과, 2004년도 이후에 개교하는 건물 중앙에 도서관이 위치하도록 배치하고 본체 건물에 강당을 포함해서 설계하겠다고 하셨는데, 2004학년도에 개교되는 청주시의 신봉·성화·사천·울봉초등학교와 충주시의 금릉초등학교, 그리고 제천시의 내토초등학교 등 6개 학교에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선거공약과 관련해서 초등교육국이 부활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국장님께서 같은 날 같은 회의시에 답변하신 사항입니다.

우수한 교원들이 시지역이나 읍단위 중심학교를 선호하도록 교원인사 관련 규정

[제153회-제2차 본회의]

을 개정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추진 실적과 이러한 사항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마련 중인 농어촌교육 발전방안에 반영되도록 건의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건의하셨는지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행사에 참여하는 교원들의 보강수업을 맡아 하는 교원들에게 보강수당을 책정해서 지급하도록 조치한 실적과 일반계고등학교 학력제고 대상에서 제외된 6개 학교에 대하여 지원대상 학교와 차별화해서 특기·적성교육비를 별도로 지원한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 10월 24일 제146회 정기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기획관리국장께서 앞으로 폐교재산도 재해복구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사항을 관련 부처에 건의한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년 10월 25일 제3차 예산·결산 소위원회에서 기획관리과장께서 정원가산금 지급기준을 기관별 형평에 맞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 예산편성지침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하셨는데, 지침 개정을 건의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난 회기 중에 집행청 관계관께서 향후 추진하기로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질문하였는데,

답변을 들어보고 난 후 보충질문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보고서가 완성되는 대로 제출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사항이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10월 21일 제146회 정기회 제4일차 감사소위원회에서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면서 본 위원이 교원업무경감연구팀의 연구실적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관계관께서 제출해 주신 서면답변서에 의하면 교원업무경감연구팀의 활동기간이 2002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종료 후에 연구결과보고서가 완성되는 대로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보고서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자료가 지금까지 제출되지 않은 것은 그 당시에 성실치 못한 답변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감사를 수행하기 직전에 집행청 관계관들께서 엄숙하게 선서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의 솔직한 심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역 인적자원 개발 시책 및 영재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해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시에 영재교육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특수재능아를 조기발굴 육성해서 이들의 잠재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특수한 교육체제에서 양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본 위원이 이미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교육청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인적자원 개발 시범교육청으로 지정되었는데 시범연구의 핵심과제를 영재교육으로 선정, 연계하여 운영해 달라는 본 위원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 들여 주시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답변해 주신데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영재교육은 지역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의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 연계해서 추진한 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영재교육을 이끌어 갈 유능한 교원을 양성한 실적, 그리고 형식적이 아닌 현실적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교재 및 학습지도자료를 개발한 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만약 이러한 실적이 아직까지도 미흡하다면 이와 관련해서 향후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 위원은 이 질문을 통하여 교육감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교육위원들과 함께 학사시찰을 통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과학영

재학교를 탐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학교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난 후에 본 위원을 비롯한 모든 교육위원님들께서는 '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학교 설립을 진작에 서두르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돌아 왔습니다.

이러한 교육시책을 구상하는 것이 김천호 교육감님의 교육철학과 잘 맞아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산광역시에 선수를 빼앗긴 것 같은 그 아쉬움이 더욱 컸습니다.

우리 도의 교육지표가 지역 인적자원 개발을 선도하는 희망찬 충북교육입니다. 이 훌륭한 지표를 위하여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계서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지역의 인적자원 개발을 선도하려면 특별한 차원의 영재교육이 중요한 선행과제라는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계관계서 열심히 연구 노력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 부산영재학교의 2003학년도 신입생 모집결과를 보면 우리 도에서는 28명이 응시해서 단 한 명도 합격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합격자가 한 명도 없는 시·도는 16개 시·도 중 충북이 유일합니다.

불행하게도 이것이 충북 영재교육의 현

주소일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유일한 척도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관계관계에서도 이러한 결과를 알고 나서 개운치 못했음을 부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교원연수 조금 더 시키고 예산 조금 더 투자해 지엽적인 정책만으로 영재교육, 그리고 인적자원 개발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가시적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이 교육의 특성인데 말입니다.

교육감님,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됩니다.

학교명칭이나 가르치는 영역이야 어떠한 간에 다양한 재능을 가진 영재들을 폭넓게 발굴·육성할 수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 즉 가칭 무슨무슨 영재학교를 우리 도에 설립·운영하는 것이 우리 도의 교육지표인 지역 인적자원 개발을 선도하는 희망찬 충북교육의 실현과 잘 어울리는 중요한 시책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확신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뜻있는 답변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아울러 관계관들을 과학영재고등학교에 출장 조치하셔서 심도있게 연구해 주실 것을 함께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학교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추진하면서, 독서생활화 교육을 강화하고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것에 대하여 본 위원은 매우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신설학교 건물에 도서관 배치를 신경쓰시는 교육감님의 배려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와 관련하여 일선 현장에서 들려오는 의견을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38교 학교도서관에서 디지털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단위의 도서관 업무 통합, 도서의 종합 목록 비치 및 E-BOOK 활용, 각종 정보 연계 활용 및 독서교육 정보와 서비스 지원 등의 추진 상황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올해 안에 3,40개 정도의 학교가 디지털 자료실을 갖추게 될 예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서 교육은 독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독서를 통하여 학력신장은 물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있습니다. 독서교육을 위한 과목별·단위별 자료실, 수업을 위한 포괄적 읽기 자료 및 독서 신문 등의 학교 나름대로의 창의적 독서 활동의 운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고 계시는지요?

2학기부터 운영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E-BOOK은 방대한 양의 도서를 컴퓨터로 읽어야 하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현재는 사회, 문화적인 분위기가 그 활용도에 많은 의문을 제시하여 잠시 E-BOOK 제작의 진행을 주춤거리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실제 서지 형태의 독서지도와의 병행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교수학습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과별, 과목별 지도자료로서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있으신지요?

또 하나는 학교도서관 운영이 활성화되려면 이를 관리하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이미 권장한 내용입니다만은 사서인력이 도서관에 전면 배치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이 되겠습니까?

도서관 담당선생님의 업무도 덜어드리고, 실제적인 ICT 활용효과가 기대될 수 있도록 사서직 전면 확보 시기를 앞당겨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학사행정 및 교원인사제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지역별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고교생 진로지도 설명회라는 신규사업을 한다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는데, 학교관계자들이나 학부모들로부터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중간결과에 본 위원도 사업에 대한 좋은 평에 기쁨 마음으로 축하드리며,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최근에 고입전형 방법도 일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중학교까지 확대 실시해서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진학지도에 혼선이 없도록 조치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 내용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본 위원이 요청한 사항인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실현될 수 있겠지만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한 봉사정신이나 질서의를 배양하는 것은 중요한 인성교육 수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정말 순수한 사도의 모습으로 청소년단체 활동을 묵묵히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께서 힘을 더할 수 있도록 인사상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른 시·도에서는 이 분들에게 어떠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지

[제153회-제2차 본회의]

조사된 자료가 있으면 알려 주시고, 자료가 없으시면 그 현황을 조사해서 추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2)

(끝에 실음)

다음에는 기간제 교사 임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3월 교원 정기인사 때에 북부지역에 기간제 교사를 편향되게 배치함으로써, 지역주민이나 학부모들로부터 큰 반감을 가져온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선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노파심에서 지역의 여론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의 경우 기간제 교사가 2001년도에 도내 39명 중 제천·단양에 17명 44%, 2002년도에는 36명 중 21명 56%, 2003년도에는 53명 중 21명 40%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지표에서 형평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주민여론을 불편하게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간제 교사 정원을 특정지역에 편중되게 배치할 것인지, 그렇지 않고 그 동안 개선방안을 강구하셨다

면은 그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천학생회관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잘 아시다시피 도내에서 북부지역, 특히 제천·단양은 그 지리적 특성상 다른 지역보다 청소년들의 문화적 공간이나 활동 꺼리가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기존의 학생회관을 잘 활용하면 이러한 문화적 요인의 결핍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 착안하여, 현재 연간 약 2개월 정도밖에 운영되지 못하는 노천식 수영장을 실내수영장으로 전환해서 연중 운영한다면 학생들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장소로 이용될 수 있어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므로 이에 따라 본 위원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방안을 강구하던 중 얼마 전에 매우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공표할 단계는 아니지만은 상당한 액수의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 및 지방의 관계부처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회신을 받았습니다.

교육감님, 이러한 여건이 조성되고 나면 상응하는 정도의 자체재원을 지원해서 제천학생회관 내의 수영장을 실내수영장으로 전환시켜서 북부지역 학생 및 주민들의 명실상부한 문화활동의 중심센터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지역의 학생들과 주민들의 여망을 충분히 헤아리셔서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실 것을 바라오며, 본 위원도 이 자리에서 예정된 재원이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질문드린 내용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 그리고 마지막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교육행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영용 위원님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이상일

성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송대헌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헌 위원 발언대로 나옴)

● 송대헌 위원

송대헌 교육위원입니다.

질 높은 충북교육과 교육자치 구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는 존경하는 이상일 의장님, 그리고 생명경영, 품격행정과 신나는 교실,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온갖 정성을 다 하시는 김천호 교육감님과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생각했던 충북교육 시책에 대한 행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서는 학교중심의 현장교육에 중점을 두고 교육행정을 펼쳐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특히 전국 72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충북교육청이 전국 최상위 등급을 받음으로써 주민들로부터 투명한 행정을 한다는 신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충북이 부산, 광주와 함께 지역인적자원개발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충청북도인적자원개발추진팀이 구성되어 알차게 추진되고 있으며, 충북교육이 지역인재를 충분히 양성하여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잘 하리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육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 교육의 기본이 흔들리는 어려운 고비에 있다고 본 위원은 진단합니다.

교육이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까?

선생님을 위하여, 학부모를 위하여, 교육부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까?

교육은 그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장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단에서 발전을 위한 갈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교육의 문제가 혼란스러워서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 하나만 보아도 교육부가 인권위에 권고안을 무시하고 예정대로 추진한다면 전교조는 연가투쟁도 불사하겠다, 교총이나 교장단 협의회에서는 교육부가 국가인권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이면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관련업무를 거부하겠다, 교육부장관은 중단, 인권위 결정 존중, 예정대로 시행, 나이스(NEIS), C/S 모두 인정 등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 말이 이어오다가 어제 26일 교육부와 교육부장관의 용기있는 결단으로 교육의 위기가 해소되었다는 보도와 교육이 다시 정면 충돌, 교총, 교육감 반발, 윤 장관 퇴진요구의 큰 활자를 읽게 되는 학부모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본 위원은 우리 교육계에 만연한 무소신 무원칙 무정신의 극치를 학부모에게 흰히 보여주는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합니다.

모두가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치의 양보도 찾아볼 수 없고, 상생의 지혜를 모으려 하지 않고,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아이들을 등에 업고 교단이 갈라지는 파열음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큰 목소리가 아니라 작은 목소리라도 귀담아 들을 수 있고, 나는 승리하고 너는 실패하랴가 아니라 나도 승리자요 너도 승리자가 되는 지혜를 모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아이들의 학습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이들을 불모로 하는 어른들의 목소리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단갈등에 대하여, 교육감께서는 학교와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을 구성하는 모든 매개체들이 유기적인 협력 관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며, 교육계 내부에 잔존하는 갈등과 대립구도를 타파, 함께 고민하고 즐겁게 만들어가는 교육을 일궈나가겠다고 취임 1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모든 교단의 대립과 갈등을 어떻게 화합과 단결로 중복의 교육력을 하나로 모으며, 구성원 간의 서로 다른 의견을 수렴하여 상생의 해법은 전혀 없는 것인지,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음란 메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

고자 합니다.

인터넷은 우리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초등학생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영상세대, N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로서는 한시도 컴퓨터를 멀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컴퓨터로 인한 역기능도 만만치 않습니다. 밤새워 컴퓨터 오락에 몰두하는 컴퓨터 중독증, 무차별 공습하는 음란 이메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불건전한 사이트 접속에 대한 무방비, 채팅 등 어린이들의 심신 발달과 청소년들의 생활지도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초등학생에게까지도 무분별하게 보내지는 음란메일의 실태는 어떠하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인터넷 사이트 접속 실태와 지도 실적 및 향후 지도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소년 지도 캠프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여름방학이 되면 청소년의 탈선을 막기 위하여 시·군별로 청소년 지도 캠프를 설치 운영하고 합동 교외생활지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합동 교외생활지도 및 청소년 지도 캠프 운영 실적과 문제점을 밝혀주시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생활지도의

영역이나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담당관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미국 현지 어학연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도 하며, 그래서 교육은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전국 타 시·도에 비하여 충북교육이 앞서간 부분이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1987년부터 미국 치코대학에서 영어에 의한 유창한 언어소통과 미국의 문화를 체험하도록 도내 초·중·고 선생님과 학생에게 매년 현지 어학연수를 실시해 왔으며, 금년에도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수를 시작할 때와 지금의 시대 상황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상황의 변화에 따른 어학연수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치코대학에서의 어학연수를 이수한 총 인원은 몇 명이며, 1주간의 문화 체험 자비 예산을 제외하고 교육청이 부담한 소요경비를 밝혀주시고, 17년간 치코대학에서 어학연수를 실시해 오면서 교육과정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으며, 특기할만한 평가분석 내용 및 도출된 문제점,

연수경비 산정 방법과 연수경비에 대한 효율성, 문화체험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참여자의 자비부담 감소방안, 앞으로 현 지 어학연수를 치코대학에서만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다변화 할 것인지, 국내연수와의 연계방안 및 향후 개선방안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교육금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금고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 도의 교육예산이 1조를 넘었습니다.

2002년 11월 20일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금고운영개선 지침 개선방향을 보면 기본방침으로 자치단체 금고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준 강화로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2001년부터 자치단체의 금고에 치금이 최고 5,000만원 범위 내에서만 보호됨에 따라 금고선정시 은행재무구조의 안전성에 최우선을 두고 선정하되, 일반 경쟁 또는 제한경쟁을 통한 금고선정 기준을 정하면서 특정항목에 높은 배점 부여로 공정성 여부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2001년 12월 26일 충청북도교육감과 농협협동조합 충청북도 지역본부장과의 체결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금고 사무취급계약서 제4조 법령, 조례 규칙의

준수에서 보면, 을, 농협본부장은 본 계약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교육금고 업무에 관한 관계 법령과 조례·규칙 및 갑, 충청북도교육감이 정하는 제 규정에 따라 모든 업무를 갑과 당해 교육장에게 성실히 이행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으며, 금고선정, 선정기준, 금고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선정절차, 선정의 공표와 약정, 금고의 해지 및 운용보고 등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전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이 확보될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이 전국 72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음으로써 주민들로부터 투명한 행정을 한다는 신뢰를 받게된 차제에 충청북도교육청금고선정·운영에 관한조례를 제정 운영함으로써 투명한 교육행정의 확고한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집행청에 한 가지 권고하고자 하는 것은 재정운영의 안전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공급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 및 기타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충청북도교육청 금고선정·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 시행할 것을 권고드리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건

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대헌 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이상일

송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진옥경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경 위원님 발언대로 나옴)

● 진옥경 위원

진옥경 교육위원입니다.

충북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교육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그간의 활동을 바탕으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청북도 학교안전공제회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얼마전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화재참사로 인하여 하루밤새 여덟 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사망학생 보상금을 둘러싼 학교안전공제회의 불합리한 규정이 사회문제화 되기도 하였기에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들이 주요 임원으로 있는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도 전향적인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학교활동 중에 일어난 학생사고 보상장치인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 각급 학교 교장이 회원으로 되어 있어 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

금 산정에 불만이 있어도 피해 학생, 학부모나 교사가 재심신청을 할 권한이 없고, 보상금 액수 조정을 자유롭게 요구할 수 없는 등 크고 작은 학생사고에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불합리를 안고 있는 현행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의 지급절차 과정은 피해 학생, 학부모, 교사가 당사자가 되는 형태로 개정되어야 하고, 이들의 청구권이나 재심청구권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향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형사고의 경우 1인당 보상한도액이 턱없이 낮고 학교별 보상한도액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형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학생, 학부모는 소송을 통해 배상액을 늘려 2001년도에만도 건당 3억 3,000여 만원의 보상금이 충청북도교육청 예비비에서 지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만만치 않은 소송비용 또한 도교육청의 별도 부담으로 추가 지불되었습니다.

2002년 제천에서 반달곰에게 손목이 잘린 학생의 경우도 소송이 걸려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같이 정작 위중하고 심각한 학생사고 앞에서 목격한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현행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송문제들은 그 보상한도액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

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아울러, 학교 화재 등으로 사망한 경우 학교재해복구공제회와 학교안전공제회 양편에서 보상받을 수 있음에도 이중지급불가라는 규정에 매여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보상지급액이 공히 낮은 두 가지 중에서 조금 나은 한 편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을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천안초등학교의 경우도 국민성금과 교육청 별도 예산으로 부족분을 충당하였다고 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이중불가의 규정으로 예상되는 학생피해 방지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로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 및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적인 진천 농다리를 아끼고 보존하기 위해 그 앞을 흐르는 혼탁한 세금천을 살리기 위한 자발적이고 장기적인 환경운동을 지역 학생과 학부모, 사회단체, 행정기관들과 함께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 교육감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또한 도교육청 차원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지역 교육행정의 상황과 어려움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하려는 차원에서 요청이 있을 때 충청북도교육청 예·결산안, 추경안을 지역교사, 학부모단체 등 교육관련 단체에 공개하는 일은 열린 충북교육행정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또한 교육위원들에게 노트북 컴퓨터가 지급되는 이 시점에 교육위원들이 요청하는 자료를 일괄 전자화, 디스켓 저장, 대외비 제외하고, 사본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요.

네 번째로 교육수요자의 진솔한 건의사항을 반영하는 학부모 고충 전담 민원 전화를 교육청 밖에 개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소의 예산투자로 적지않은 실질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학부모 고충 전담 전화 개설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향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로 타 지역에서는 특히 사립학교에서 회식비, 술값과 같은 교사항흥비, 보충수업수고비, 수학여행수고비와 같은 집단적 학교 불법 찬조금이 극성을 부리고 있으며, 설령 합법적 과정을 거쳤더라도 조성목적과 액수가 교육적 차원을 넘어 학부모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는데 충청북도의 실태는 어떠하며 무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지속적으로 임대 활용되고

있지 않은 폐지학교를 지역 예술가들의 활동거점으로 제공하고, 인근 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요.

아울러, 현재 시·군별 폐지학교 이용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학교명, 임대자,
임대기간, 활용도를 첨부하여 2002년도
이후 자료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2)

(끝에 실음)

일곱 번째로 2002년 교육행정 감사시
본 위원이 질문하여 파악한 바로는 도교
육청에서 지원하는 빈곤가정 중식지원 대
상 학생에 대한 뚜렷한 선발기준이 없어
누락 우려가 컸습니다.

이에 2003년도에는 어떻게 시행하고 계
신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002년, 2003년 빈곤가정 중식지원학생
선발기준 및 지원현황을 공개해 주시고,
누락 학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마련
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려 주시기 바랍
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옥경 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이상일

진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기수 위원님 나오셔서 질
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위원 발언대로 나옴)

● 이기수 위원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요즘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문제로 각
주체들 간의 갈등으로 교육계가 혼란스러
운 이때 충북교육은 청렴도 평가에서 상
위를 차지하고, 충북교육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경주하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직원, 1만 6천여 교육가족
들의 노고에 대해 사의를 표합니다.

교육은 세계화, 정보화의 목적하에 외
국어 교육이나 컴퓨터 교육에만 열중하고
있으며 입시위주의 교육으로서 파행적으
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정서교육이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이때 기존 충북학생회관이 매우 협소하
여 학생들의 문화공간으로 부족한 점이
 많으며 독립된 학생 연수기관도 없는 형
편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학생문화회관을
건축하려는 것은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하
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규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산학생회관은 국고 200억, 자체 지방
비 예산 81억 해서 281억으로 연면적 1만
7,380.65㎡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이

며, 대구 학생문화회관은 문화시설 1,965평, 스포츠 시설 1,170평으로 정보시설 359평, 커뮤니티시설 8평, 도합 3,500평 규모로 429억이 투자되었으며, 광주문화회관은 국고 200억, 지방비 27억, 부지 7억, 계 234억원인데 비해 충북은 재정규모 190억원인데 너무 적은 규모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교육문화회관 건립부지 확보요청에 대한 도청 회신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3월 25일자 충청북도청으로부터 회신한 공문내용을 보면 학생문화회관 부지를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14번지 일원 7,000㎡에 대한 무상사용을 허가하면서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참고사항에 보면 우리 교육문화회관은 우리 도를 바이오 메카로 만들기 위하여 타 도와 차별화된 바이오 관련 시설이 추가 되어야 하며, 회관의 명칭, 기능, 전시실 면적 및 배치 등에 대하여 설계 전 우리 도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추진을 요망한다고 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의 의도는 학생문화회관 내에 일부, 즉, 한구석에만 바이오 시설을 하고 모든 주된 공간은 학생들의 문화공간으로 배치하려는데 이것은 도청과 교육청 간에 충돌되는 부분은 없는지,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소의 적정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설립예정지는 비행장과 공항이 너무 가까워 소음피해도 우려되고, 시내 중심가에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이용율이 저하될 것으로 생각되며, 2001년 11월 31일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96호에 의하면 지방교육행정기관, 기관재정, 투융자심사규정 제3조에 의하면 교육감이 실시사업비 2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은 지방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200억원 이상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기 위하여 200억원 미만 190억원 예산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학생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학생문화회관 사업은 사업승인도 받기 전에 학생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시급성을 주장하며 설계비를 1차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여 교육위원회 예산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문제점으로도 지적되며, 충북교육의 양대축인 교육위원회를 경시하는 것은 아닌지, 또한 최근 5년 이내에 이와 같은 예산편성의 실적은 몇 건이며, 앞으로 이런 시급성을 내세워서 예산편성을 또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 다

시 할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습니다.

끝으로, 지금 기존 학생회관이 기계공
고 캠퍼스 안에 있습니다.

그 학생회관은 매우 협소하고 적습니다
만은 새로운 학생문화회관이 건립된 이후
에는 이 학생회관은 어떻게 이용할 것인
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으면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몇 가지를 성심성의껏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
다. 감사합니다.

(이기수 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이상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모두 질문을 마치셨
습니다.

그 동안 교육행정질문을 심도있게 준비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하
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3
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청에서는 질문의 요점에 정의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답변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
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0 출석위원 : 7명

의장 이상일, 부의장 고규강,

위원 김남훈, 성영용, 송대현, 이기수,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11명

교육감 김천호,

부교육감 김용호,

교육국장 반창남,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초등교육과장 정무,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 이기식, 총무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 서면답변서(별첨 2)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3년 5월 29일 (목요일) 14시 04분

議事日程 (제15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1. 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

附議된 案件

1. 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의장 제의)

(14시 04분 개의)

● 의장 이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집행청으로부터 김용호 부교육감님과 안세열 시설과장께서는 교육인적자원부 현안 업무협의 관계로 임흥빈 중등교육과장께서는 교원단체 선진지 시찰 관계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를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

● 의장 이상일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 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청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직제순에 의하여 담당관 및 국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답변을 들으신 후에 보충질문을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보충질문 및 답변

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발언대로 나눔)

● 교육감 김천호

존경하는 이상일 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평소 본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교육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7일 교육행정질문 시 교육위원님 여러분 모두가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우리 충북 교육을 걱정해 주시면서 훌륭하고 유익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충북 교육가족들의 뜻을 대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충실히 답변드림은 물론, 앞으로 교육행정에 최 대한 반영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주신 교육위원님들의 순서에 따라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담당관 및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규강 교육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군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 배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시·군 교육장 및 직속

기관장의 초·중등 임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96년 3월 1일 시·군 교육장 일부를 변경 보임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시·군 교육장의 경우 초등이 5명, 중등이 6명 배치되어 있으며, 전문직 기관장이 보직된 2개 직속기관은 모두 중등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시·군 교육장의 경우 초·중등 비율이 5 대 6으로 배치되어 있으나 시지역 3개 교육청이 중등으로만 보직되어 있고 2개 직속기관장 모두 중등으로 배치되어 있어 균형적인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시급한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이러한 내용에 대해 심도있는 관심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과 식견으로 지적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하신 초·중등 배치 비율을 조정하거나 격년제 배치 등 다각적인 방법을 관련부서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 신중한 검토를 거쳐 초·중등 불균형을 최소화하는 개선책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영용 교육위원님께 질문하신 지역인적자원개발 및 영재교육과 제천학생회관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인적자원개발 시책 및 영재교

육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재교육과 지역인적자원개발 연계 추진실적은 현재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전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인적자원개발계획 속에 고급인력의 확보를 위한 생애 단계별 5단계 영재교육을 실현토록 구안중에 있으며, 7월말까지는 세부 추진계획이 구체화될 것입니다.

둘째, 영재교육을 이끌어갈 유능한 교원을 양성한 실적 및 활용가치가 높은 교재 및 지도자료 개발 실적으로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2002년도에 초등학교 11명, 중등교사 16명 등 총 29명에 대하여 60시간의 영재교육 직무연수를 실시하였고, 2002년도에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과학, 수학분야 지도자료 50차시 분을 시·도 공동으로 개발하여 보급하였으며, 이 자료는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용으로 교사용 지도서와 학생용 학습지 형태로 되어 있어 영재학생 지도에 매우 유용한 자료입니다.

셋째, 영재교육의 활성화 대책으로는 2003년도에 영재학급 6학급, 영재교육원 13개 47학급을 증설하고 영재학생 1,017명을 선발하여 교육시킬 예정이며, 우수한 영재교육 담당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의뢰하여 13명을 6월중 120시간 심화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며, 겨울방학 중 추가로 80명을 선발하여 직무연수를 실시하여 전문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영재교육 지도자료의 개발도 과학, 수학분야 심화 교수·학습자료 70차시 분과 영재학생 판별도구를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12월말까지 개발하여 활용할 예정입니다.

넷째, 종합적·근본적인 대안으로써 특성화고등학교인 영재학교를 설립·운영할 의향에 대해서는 영재학교의 신설은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권한으로 시·도 조례로 영재학교 설치하는 불가능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하여 본도에도 설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천학생회관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천학생회관의 수영장은 648명으로 2002년도에 1만 2,000여 명이 이용하였으며, 이를 실내수영장으로 전환하려면 최소 5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요예산 중 상당액이 국고로 지원된다면 자체재원 지원을 적극 검토하여 제천학생회관이 북부지역 학생 및 주민들이 문화활동의 중심센터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대헌 교육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교단갈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이란 대의를 염두에 두고 모두의 총의를 모아 바람직한 문제 해결 행을 만들고 갈등의 원인과 현상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학생·교원·학부모·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원들의 권익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균형있게 반영되도록 대화로써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관련되는 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공식문서가 접수되면 이를 기초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여 일선 학교 현장의 정상적 학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4년도 대학 수시·학기모집 전형자료인 학교생활기록부는 나이스(NEIS), C/S, 수기 등으로 작성 처리하여 대학에 제출, 대입전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교단의 대립과 갈등을 조화롭게 극복하고 화합과 단결로 충북교육이 발전되도록 하기 위하여 충북교육발전 공청회를 개최하여 교육정책의 폭넓은 여론수렴을 통해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교원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합리적인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고, 학습권 보

호를 위한 기반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진옥경 교육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혼탁한 세금천을 살리기 위한 환경운동을 학생, 학부모 및 행정기관과 연계하여 전개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 세금천은 농공단지의 공장 및 축산 농장의 폐수로 수질오염이 심각하여 진천군청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을 설치 운영하여 2005년까지 3급수를 2급수의 맑은 물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고, 진천교육청에서는 문상초등학교를 세금천 농다리 주변 환경보전 관리 학교로 지정하여 쓰레기 줍기, 환경탐구활동 등 환경 보전활동을 월 1회 전개하고 있으며, 농다리 축제시에는 초·중·고등학교 25개교가 참가하여 환경보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학생종합야영장에서는 등산 및 문화유적지 답사 프로그램 운영시 하천부터 농다리까지 극기훈련 및 자연보호 활동을 실시하고, 야영활동 후에도 하천 환경보전교육 및 자연보호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의 기관 및 환경보전 단체와 연계하여 물 살리기 운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하천 생태계 보전활동에 적극 참여 하겠으며, 학생 및 학부모에게 환경보전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세금천 살리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수 교육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문화회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회관 건립 추진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분위기에서 다양한 정보 문화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지역 인적자원 개발의 선도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교육문화회관의 건축 규모와 사업비가 타 지역보다 너무 적은 규모라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우리 교육청의 재정 여건상 건축 연면적을 총 3,900여 평 규모의 2개 동으로 시설할 계획으로 총 소요예산을 190억원, 교육인적자원부 특별교부금 150억원, 자체부담 40억원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산, 대구, 광주 등 타 시·도 교육문화회관의 경우 수영장 및 실내체육관 시설과 부지매입 등으로 우리 도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다고 봅니다.

둘째, 밀레니엄타운 내 부지 7,000평 무상사용에 따른 사업 실시 전 충청도청과의 협의에 대해서는 교육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바이오 관련 전시실 배치 등에 대한 충청도청의 의견과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조정

하고자 충청북도과 기본계획을 협의 중에 있어 원만하게 조정될 것으로 봅니다.

셋째, 건립부지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교육문화회관 건립 위치를 밀레니엄타운 내로 계획하고 있는 사유는 충청북도청의 소유의 7,000평의 건립부지 무상사용에 따라 막대한 사업비 절감효과가 있으며, 인근 오송과학산업단지와 도청에서 추진 중인 밀레니엄타운 조성계획이 가시화될 경우 주변여건을 활용한 생명공학산업에 대한 체험학습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며, 건축시설 시 방음시설을 철저히 하여 인근에 위치한 비행장의 소음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넷째, 제1회 추경 설계비 계상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교육문화회관 건축을 위한 설계는 건축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를 거쳐 설립계획을 승인 받은 후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이나 지난 제1회 추경예산에 설계비를 계상한 사유는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교육위원회를 경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다만 추경시기를 감안하여 건립부지 무상사용 가능과 건축사업 특별교부금이 일부 확보된 관계로 조금이라도 추진 일정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건축 타당성 조사 용역비와 설계비를 동시에 계상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

합니다.

교육문화회관 건립 후 현 학생회관의 활용계획으로는 교육문화회관 건립이 추진된 후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 학생회관의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보고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남훈 교육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 소규모학교 급당 학생수 조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농촌지역의 소규모 초등학교는 학생수가 감소됨에 따라 학교 폐지 또는 분교장로의 격하 등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특히, 학년당 학생수가 8명 이하이거나 2개 학년을 합한 학생수가 16명 이하일 경우 부득이 복식학급을 편성 운영하고 있어 학생교육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도내에는 본교 18개교, 분교장 29개교에 101학급의 복식학급을 편성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복식학급 전체를 해소하기는 어려우나 학생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04학년도부터는 복식학급 편성기준을 하향 조정하고자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이상일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옴)

●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옥경 교육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찬조금 모금 실태와 학교 불법 찬조금 근절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찬조금은 1998년 9월 15일 교육부령 제 724호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면서 적법한 절차로 조성·운영되고 있으며, 2001년도 이후 학교발전기금이 불법으로 모금된 사례는 없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학교발전기금 회계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기금의 모든 수입은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 발전기금 모금 근절방안으로 공직기강 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부정부패신

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어 불법 모금과 관련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례 적발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엄중 문책하고 반환 조치하여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품격행정 및 열린교육행정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이상일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교육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옴)

● 교육국장 반창남

교육국장 반창남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일 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규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교육진흥지역 학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진지역이 아닌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 학교의 활성화를 위해 '95년도 144개교에서 2001년도 151개교를 농어촌 교육진흥지역 학교로 확대 지정하여 현재 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농진 지역 학교인 소규모 학교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교감, 행정직, 교무보조 인력 배치, 사택 개·보수 및 교실난방 등 근무여건 개선과 연구학교 지정 등으로 우수한 교사들이 농촌 소규모 학교 근무를 희망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교육진흥지역 학교 지정에 대한 문제점 조정을 위해 현재로는 국가에서 법률로 지정한 벽지학교가 지정 해제될 경우에 한하여 농진지역 가산점 부여 학교로 추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진지역 학교의 대부분이 지정 당시보다 교통과 의료·문화시설 등 제반여건이 변화하고 있는 관계로 농진지역 학교의 확대와 폐지 등 재조정 문제는 장 단점을 다각도로 분석 검토하여 농촌 소규모 학교 경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훈 교육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학버스 제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흥덕, 서원, 주성고 등 3개교에 통학버스를 제공하게 된 사유는 2003학년

도 고입전형에서 제1지망부터 제4지망까지 탈락하여 미달학교에 임의 배정된 인원은 917명입니다. 이들 중 일부 학부모가 2003년 1월 27일부터 1월 30일까지 도교육청을 찾아와 항의하는 일이 발생하였는 바,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은 가까운 학교로의 재배정, 또는 교체 입학 후 인근 학교로의 전학 허용 등 두 가지로써 검토 결과 모두 규정상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부모의 항의사태가 확산,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학부모의 요구사항 중 교통편의 제공 문제는 이들 신설학교가 신흥 주택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아직 대중교통편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통학버스 제공에 따른 학부모와의 합의내용과 그에 따른 경비지출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부모와 합의한 내용은 두 가지로 신설 3개 학교의 교통편의 제공과 신설학교의 우수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입니다.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노선의 증편과 조정을 청주시청과 협의하였으며, 특히 신설 3개 학교에 원거리 교차 배정된 학생들을 위해 통학용 버스를 임대하여 등·하교시 통학편의를 제공키로

하였습니다.

신설학교의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능력 있는 우수교사를 신설학교에 우선 배치하였으며, 각종 교육기자재와 교구 확보를 위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어 경비지출 내역입니다.

학부모와 약속한 내용은 통학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당 매월 250만원씩 연간 7,500만원의 경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지난 2월 고교 현안 교육사업비 중에서 필요경비를 학교에 지원하여 해당 학교에서는 운송회사와 계약하여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항이 재발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학년도 고입에서 발생한 사태는 2001년 7.20 교육여건 개선 사업에 따라 고등학교 학급당 정원을 35명으로 편성하면서 늘어난 학급수를 수용하기 위해 신설학교 3개교를 동시에 개교하면서 발생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고입에서는 지망단계에서 학생들이 거주지 인근학교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지난해와는 달리 탈락학생을 임의 배정하는 단계에서 거주지 인근의 미달학교를 2개교씩 추가로 희망하도록 배정방법을 보완하여 지난해와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정종목 육성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 1일 기준 학교별 지정종목 현황은 초등학교 269팀, 중학교 205팀, 고등학교 148개 팀, 총 622팀이며, 이는 691팀에서 69팀을 해제한 종목별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2)

(끝에 실음)

지역교육청별 초등학교 6학급 전교생 70명 이하와 중·고등학교 3학급 전교생 50명 이하인 학교에는 단체종목을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정종목 운영에 대하여 앞으로의 계획은 각 지역교육청에서 희망 조정자료를 제출 받아서 2003년 9월 1일 지정종목을 축소 지정할 계획이며, 초·중·고 연계가 분명하지 못한 종목도 조정하여 각급 학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성영용 교육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회기에서 추후 추진하기로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읍 단위 중심학교를 선호할 수 있도록 가산점을 인정하는 인센티브 제공에 필요한 관련 규정 개정 실적에 대하여는 교원 승진가산점 부여를 위한 규

정인 대통령령이 2002년 6월 25일 개정되어 적용하고 있으며, 농어촌 교육발전 방안에 대하여 반영되도록 건의한 내용은 2003년 4월 11일 전국 인사담당자 회의시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와 논의한 바 있으나,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구학교지정, 근무환경 개선 등 다양한 우대방안을 계속 연구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사에 참여하는 교원들의 보강수업을 맡아 하는 보결수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조치에 대해서는 2003년도 학교예산 편성시 학교 실정에 맞도록 책정하였고, 보결수업을 위한 시간강사 수당은 임용기간이 10일 미만일 경우 학교 회계에서 부담하고 10일 이상인 경우 기타직 보수 예산에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일반계고등학교 학력제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6개교에 특기·적성교육비를 보전한 실적으로는 신설학교 3개교에 각각 320만원, 국립대 부설고 2교에 각각 170만원, 체육고등학교에 450만원 등 6개교에 총 1,7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서를 통해서 학력을 신장하고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있다는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신 위원님의 고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학교에서의 독서교육은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습력 증진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특수성, 학습자 성향에 따라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과교육과 관련한 독서교육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교과별, 학년별, 단원별 필독도서를 선정 운영하고 있으며, 도서관 운영과 각종 독서교육 관련 자료를 개발·보급하였고, 다양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구안 적용하고 이에 따른 수행평가 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학교실정에 따라 다양한 독서교육 활동도 전개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독서토론대회, 독후감 발표대회, 각종 사이버백일장, 독서퀴즈대회, 정보검색대회 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계획들이 내실있게 추진하고 새로운 독서프로그램의 구안과 시행을 위하여 지난 3월에는 학교도서관 및 독서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각급 학교에 시행한 바 있으며, 향후 장학지도와 현장방문 지도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교도서관 정책 연구학교는 3개교가 있습니다. 삼산초등학교, 옥산중학교, 제천여고입니다.

독서교육 관련 시범학교는 남성중학교 1개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연구결과를 각급 학교에 보급하여 일반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은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독서신문을 발간하고자 하면 모체가 되는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얼마든지 추가 사용하여 특성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E-BOOK과 서지 형태의 독서지도와 병행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 활성화 사업은 서지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이며, 다만, 학습자가 인터넷 세대라는 점에 주목하여 독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고 독서활동에 대한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해 E-BOOK을 선보이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화상이나 어린이 자료, 동시에 여러 학습자들이 볼 필요가 있는 자료, 학습에 꼭 필요한 자료 등 서지 자료보다 E-BOOK이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학교도서관 사서인력이 도서관에 전면 배치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이며

확보시기를 앞당기실 의향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금년도 사서교사 2명을 이미 배치하였고, 학교도서관 지원팀으로 사서직 15명을 임용하였습니다.

또한 1차 추경이 성립되는 대로 60명 일용직 사서를 각급 학교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힘써주시는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명년도에는 2001년, 2002년에 구축한 학교 30개 학교와 금년에 구축할 학교 74개교 등 현대화 시설이 갖추어진 학교 104개 학교, 그리고 2004년도에 구축 예정인 학교도서관 학교 약 60개 학교를 포함하여 현대적 시설을 갖춘 170개의 학교 도서관에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도서관을 운영할 인력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학교도서관 시설 개선으로 환경이 크게 개선된 학교부터 사서직을 배치하여 현대화된 학교 도서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사행정 및 교원 인사제도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로지도설명회를 중학교까지 확대 실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4년 대입 고3 학부모 대상 진로지도설명회를 4월 중에 개최하여 학부모의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 하에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에 힘입어 2003년 6월 중 고1학년, 2학년과 중학교 학부모 대상으로 대입 대비 진로지도설명회를 청주, 충주, 제천 등 시지역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점차 읍 지역까지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후,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 설명회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과 충분한 대비를 강구함으로써 우리 충북학생들을 미래사회의 선도적인 역군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단체 지도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12월 중에 각급 학교 단체활동 유공 지도교사에 대하여 각 단체별로 추천을 받아 교육감 표창 대상자를 확대하고 금년부터 청소년단체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수련 활동 분야 연구대회를 개최하여 연구실적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단체별 교원 특수분야 직무연수 개설시 지도교사에 대한 연수 수강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각급 단위학교에서 단체활동 전개시 지도교사에 대하여

[제153회-제3차 본회의]

출장과 수당 등의 각종 편의 제공 등으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기간제 교사 임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교사의 정기전보 인사 결과 당해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희망 교사는 많고 전입희망 교사가 부족하여 교원수급상 부득이 신규교사 또는 기간제 교사로 충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부 지역에 대하여 3월 인사시 타 시·도 전입교사를 추가로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9월 인사시에는 타 시·도 전입 교원을 확보하여 일부 지역에 우선 배치함은 물론, 내년 3월 정기인사시 정규교사를 우선 배치하여 기간제 교사가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대현 교육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음란메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란메일은 스팸메일 형태로 유통되는 메일입니다.

현재로서는 제어수단이 없는 실정이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청소년의 유해사이트 접근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정통부에서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도 교육청에서도 각 가정과 연계하여 차단시스템 설치를 강구하겠으며, 스팸메일과 불건전 정보유통에 대

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한 인터넷사이트 접속 실태와 지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부의 전국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유해사이트 접속 실태는 초등학생이 68.3%, 중·고등학생이 84.4%로 조사되었으며, 접속 장소로는 청소년의 96.4%, 어린이 65.6%가 가정의 컴퓨터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지도내용으로는 2002년도 모든 학교에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이 내장된 캐쉬서버를 보급하여 차단하고 있으며, 가정의 컴퓨터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및 조선일보와 한국통신 등에서 보급하는 유해 차단 프로그램을 보급, 다운받아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보통신윤리 장학자료를 2편 내지 4편씩 개발 보급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도대책으로는 정보통신 윤리교육의 내실있는 추진과 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범국가적 민·관 합동대책위원회의 동참을 일선 학교에 적극 홍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년 지도 캠프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지도캠프는 11개 지역교육청에서 하절기 생활지도를 집중적으로

지도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최근 2년간의 지도실적으로는 합동생활지도는 지역별 평균 32회, 참여 연인원 1,280명이며, 청소년 캠프의 경우 지역별 연 30일간, 참여인원은 1,39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지도하는 교사들에게 근무시간 외의 활동으로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데 따른 어려운 점과 지도교사의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를 진작한다는 차원에서 현재 1회 1만원 선에 불과한 합동지도 수당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생활지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인근 학교간 교사 합동지도와 함께 경찰을 비롯한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은 물론, 청소년을 유혹하는 유해환경을 퇴치하고 개선하기 위한 강력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조성과 지역주민의 청소년 보호 의식을 계도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급격한 사회 변화의 와중에서 성장하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 세대에게는 분명 새로운 방향의 생활지도 방식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에서 우리 교육청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연을 사랑하는 심성교육, 자

율과 책임의식 내면화를 위한 민주시민 교육, 처벌이나 단속보다는 교육적으로 의미있는 다양한 생활지도 프로그램을 투입하고, 사랑의 대화 나누기, 건전한 청소년 문화 창달을 위한 교육활동 전개, 사이버 세대의 올바른 네티켓 함양 등을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개념의 생활지도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 현지 어학연수, 치코대학 연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코대학에서 실시하는 미국 현지 어학연수는 1988년에 시작되어 2002년까지 15년간 총 602명의 초·중등 교사가 연수를 받았으며, 2002년도에는 초·중등교사 30명과 함께 초등학교, 중등학교 학생 30명의 연수를 시작하였습니다.

교사 30명에 대해 연수를 실시한 2002년도의 연수경비 내역은 교사는 1인당 연수경비 1,775달러, 왕복항공료 134만원, 총액 1억 653만 4,000원이며, 학생도 연수경비는 교사와 똑같이 1,775달러이며, 항공료는 교사의 반인 121만 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5년 동안 치코대 어학연수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1996년 연수단을 인솔하였던 송대헌 교육위원님 제안에 따라 1997년부터 홈스테이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홈스테이에 대해 많은 교사와 학생

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등 교사가 함께 연수에 참여하면서 초등교사와 중등교사를 분리하여 반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나 IMF 이후 연수경비를 삭감하면서 초·중등교사 30명을 통합하여 1개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연수를 시작하면서 학부모의 기대가 크고 지망자가 많아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연수인원을 점차 증가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 어학연수 경비 중 1인당 연수비 1,775달러와 왕복 항공료 1인당 134만원은 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학생들의 경우 소요경비 50%를 교육청에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액은 2억 3,195만원입니다.

연수에 참여하는 교사가 부담하는 경비는 연수 후 실시하는 1주간의 문화체험 여행경비 150만원 정도로 문화체험 여행은 희망하는 교사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여행경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치코대학은 우리 도의 영어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15년에 걸쳐 연수를 수행해 오면서 나름대로 한국 교사들에 대한 연수 방법 면에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연수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상태입니다.

다만, 연수기관을 영국이나 호주 등 다른 나라로 다변화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외 현지 어학연수 외에 서해 임해수련원과 진천야영장을 활용해 잉글리시 캠프 등 외국어 학습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할 것이며, 영어관련 연수를 다음과 같이 체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단계로는 개인별로 듣기, 말하기 훈련을 통한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을 전개하고 원어민이 있는 지역과 학교에서는 원어민을 통한 자율연수를 추진하며, 2단계로는 현재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잉글리시 빌리지와 잉글리시 캠프에 많은 교사와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3단계로는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4주간 해외 현지 어학연수를 추진하고, 2단계 연수를 이수한 자 중에서 대상자를 선발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옥경 교육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빈곤가정 중식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2003년도 빈곤가정 중식지원 학생 선발기준과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중식지원 학생 선발기준은 소년·소년가장, 결손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자치단체 석식지원자, 노동력 부족 가정 학생 등을 대상으로 읍·면·동사무소의 가정환경 조사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학기중 급식비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학생 1만 1,680명을 선발하여 학교급식비를 지원하였고, 이중, 토요일과 공휴일 및 방학중 가정에서 결식의 우려가 있는 2,185명에 대하여는 중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일부 지원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일선학교에서 선정절차 간소화와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전원과 자치단체 석식지원자,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 학생, 사회복지 시설 수용 학생, 특수학급 학생을 필수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기타 지원이 꼭 필요한 학생은 학교별 심사를 거쳐 지원할 수 있도록 선발기준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2003년도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학기중에는 2002년도보다 4,853명이 증가한 1만 6,533명에 대해 1인 1식당 초등학교는 1,500원, 중·고등학교는 2,000원 기준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방학중 지원자 2,135명에 대하여는 토요일, 공휴일 3,000원, 방학중에는 연 2회 15만원 상당의 현물 지원으로 연중 365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식지원 누락 학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식지원 학생의 전·입학 및 전출 등 학교간 이동시 관련 서류를 통보하여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긴급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는 즉시 선정·신청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저소득층가정 학생의 중식지원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이상일

교육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영용 교육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회기에서 추후 추진하기로 한 사항과 제출하기로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146회 정기회 회기 중 실시한 교육행정감사와 예·결산소위원회 등에서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 중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교육감실을 운영하면서 정책적인 현안문제가 있으면 교육위원님들과 협의하겠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일선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교직원, 학부모 등과 격의 없는 대화로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2002년 5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찾아가는 교육감실을 운영하여 오다가 현재는 안전시설 점검, 현지 확인 등 현안문제로 인하여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 동안 찾아가는 교육감실을 운영해 오면서 학교장의 건의사항은 정책적으로 처리할 현안문제보다는 대부분 시설사업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일선 학교 현장의 어려운 점은 최대한 행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육현안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교육위원님들과 협의할 사항은 협의를 거쳐 지역 현안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4년도 이후 신설되는 학교부터는 도서실을 건물 중앙에 배치하고 다목적실도 본 설계에 함께 설계하겠다는 계획에 대하여는, 2004년 개교예정인 초등학교 5개 교에는 예정대로 도서실 및 강당을 동시에 추진 중에 있으며, 충주 금릉초등학교만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로 변경하는 과정

에 있으므로 설계를 중지하고 있으나 앞으로 설계 진행시에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국 신설에 대하여 교육부에 건의한 실적에 대하여는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공통과제인 초등교육국 신설을 건의하여 동 협의회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특히 2003년 5월 16일 우리 도에서 기획관리실과 초등교육국 신설에 대한 건의를 교육인적자원부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폐교재산의 재해복구공제회 가입에 대하여는 여러차례 건의하여 2003년 5월 23일 실시된 재해복구공제회 이사회에서 폐교재산중 임대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도 재해복구공제회 가입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정관이 개정되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정해져 있는 정원가산금 지급기준을 기관별로 형평에 맞도록 교육부에 개정 건의하는 문제는 정원가산금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통보되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여 편성하는 기준경비로써 기관간 정원 규모에 따라 1인당 편성금액에 차이가 있으며,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은 매년 6월초에 정기적으로 제출도록 되어 있으므로 금년도 의견제출시에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2002년 12월말까지 교원업무경감팀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는 연구보고서가 인쇄되었음에도 제출하여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교원업무경감팀 연구실적보고서는 오늘 즉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2)

(끝에 실음)

다음은 송대헌 교육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금고조례 제정 권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님의 의견과 같이 조례 제정을 통한 금고계약 업무를 추진할 경우 객관성과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익한 점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며, 이에 따라 시 일부 지역의 자치단체에서 금고 선정에관한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6개 시·도교육청의 경우는 아직까지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의 경우도 시 지역 기초단체와는 다르게 읍·면 이하 지역에도 학교가 위치해 있으므로 편리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점포망, 자

본금, 자기자본비율, 순이익율과 같은 안전성 측면 등을 고려하여 금고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례제정을 통해 금융기관간에 공개경쟁에 의거 교육금고를 선정할 경우 교육가족의 95% 이상이 현재 금고 계약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으나, 타 금융기관으로 교육금고가 교체될 경우 타 금융기관에 거래 계좌 개설 및 거래에 따른 수수료 부담 등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금고계약 시 경쟁에 의하여 타 금융기관이 교육금고로 교체될 경우 교체 계약될 때마다 전산프로그램과의 연계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여 상당기간 업무혼란이 예상되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경쟁에 의한 금고계약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는 매우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진옥경 교육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민법 제32조 및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에 의거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보상금은 교육활동

[제153회-제3차 본회의]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장이 교육활동 중 일어난 일인지를 확인한 후 보상금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학부모가 직접 신청하게 될 경우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보상금 지급 신청 절차를 말씀드리면, 피해자의 보호자가 치료비 계산서를 첨부하여 금액을 확인한 후 보상금지급신청서에 날인 제출하면 담임교사가 사고경위서를 작성하고 이를 학교장이 신청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어 피해학생 학부모와 담임교사가 보상금 신청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정관 제11조에 의거 회원이 아닌 학부모가 학교장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신청하는 것은 행정절차상 적합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보상금 지급에 불복할 경우에는 보상금지급규칙 제11조에 의거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보상금지급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변호사, 의사 등 외부 인사가 포함된 보상심판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보상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2003년 3월 1일부터 학생 1인당

보상금액을 1억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으며, 앞으로 보유기금의 추이를 감안하여 보상한도액을 점차적으로 인상,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이 화재로 인한 신체손해배상은 학교재해복구공제회에서 지급하고, 교육활동 중에 신체상 손해가 발생하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하도록 각 정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에 의하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 받을 수 있을 때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3조의2제1항에 피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교안전공제회 정관 제5조제5호에 의하여 동일한 손해로 다른 곳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경우 보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급액에서 제외되는 피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학생 생활지도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예방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결산안을 지역 교육관련 단체에 공개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니다.

예산안의 편성 및 결산안 작성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의 권한으로 되어 있고, 예산안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 각 과 및 지역교육청과 각급 학교로부터 예산요구자료를 제출받아 편성하며, 예산안 및 결산안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2조,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심의·의결 및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 이전의 예산안과 결산안은 학교 및 지역주민의 대의기구인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에서 심의·의결 및 승인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최종 확정된 예·결산 내용은 민원실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 및 충청북도보에 고시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위원님께서 자료요청시 출력물과 함께 디스켓에 저장하여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은 전산망을 통하여 교육위원회로 제출되는 바, 교육위원회 의사국과 협의하여 동 내

용을 디스켓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부모 고충 전담 전화 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민원인의 고충을 이해하고 적극 수용하는 자세를 갖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민원실에 개설되어 있는 전화를 통하여 교육수요자의 건의사항이나 고충을 접수하여 민원실에서 자체 처리가 어려운 경우 해당하는 부서의 담당자에게 즉시 알려 처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학부모 고충전담 민원전화를 교육청 밖에 설치하는 문제는 공무원의 인력이나 근무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민원인에게 친절한 공직자의 삶을 보일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하지 않은 폐교학교를 지역 예술가나 인근 주민과 학생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예술가들에게 문화활동 거점으로 제공하여 학생들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상으로 대부해 줄 수 있는 경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에 의거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시키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당해 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만 가능하므로 지역 예술가들이 폐교재산을 무상 활용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한 취지와 같이 방안의 일환으로 폐교를 지역의 예술공간으로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도부터 기존에 대부분이 운영 중인 폐교 일부를 문화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결과에 따라 점점 확대하여 폐교의 예술공간화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군별 폐지학교 이용 현황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2)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이상일

기획관리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25분간 정회한 뒤에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 의장 이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집행청 관계관계서도 앉아 계신 좌석에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보충질문의 순서도 본 질문과 마찬가지로 의석 순으로 하되, 제가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규강 위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고규강 위원

예, 있습니다.

● 의장 이상일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규강 위원

교육감님의 고유의 권한인 농진지역 지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국장님에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다음 교육감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 충청북도에서 가장 작은 시·군부터 다섯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작은 시·군부터.

● 교육국장 반창남

교육위원님이 저의 상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의도가 있으신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 고규강 위원

잘 몰라서, 어느어느 시·군이 작은지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이 학생수가.

● 교육국장 반창남

현재 제가 정확히 그 수치는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단양교육청, 보은교육청, 옥천교육청, 진천교육청, 그 다음에 이제 영동교육청, 이런 순이 아닐까 제가 생각을 합니다.

● 고규강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셨던 다섯 개 시·군 중에 초등 교장들이 배치한 데가 네 군데가 되네요, 그렇죠? 교육장이 배치된 데가.

● 교육국장 반창남

예

● 고규강 위원

그러면 국장님들이 교육국장님이 이 충청북도 초·중등 교육의 총수로서 일을 하시는데 '94년부터 지금까지 초·중등학교수나 학생수나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육자라는 것은 더불어 살고 배려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이렇게 볼 적에 여지껏 국장님들이 계셨는데 이러한 불균등한 이러한 문제를 교육위원이 질문을 통해서 시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불균등한 문제를 교육국에서 해결해서 교육감의 결제를 맡아서 해결하는 게 타당성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반창남

예, 아주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과거에 교육연구원이 초등 교장선생님 출신으로 임용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것도 청원교육장을 중등으로 바꾸고 그렇게 해서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을 아까 고규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초등, 중등, 이렇게 2년 2년 단위로 바꾸면은 과장까지 바뀌고 그래서 어려운 여러 가지 해결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렇게 추진을 못하고 왔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연구 검토해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결집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저희가 연구하겠습니다.

● **고규강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전국의 우리 교육위원이나 교육자들이 모였을 적에 충북이 앞서가는 교육, 선진교육을 하는 곳이 충북이다, 이렇게 말씀들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들고 나왔을 적에는 저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왜, 전국의 15개 시·도가 균형적인 시도 똑같이 균형적인 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충청북도만 제일 끄트머리, 맨 뒤에서는 이런 일을 했을 적에 이것이 과연 충청북도가 변화하고 앞서가는 이런 교육이라고 생각할 적에 부끄럽고 저는 고개를 못 듭니다. 전국의 여러 교육위원들이 모였을 적에 질문을 했을 적에도, 이런 것은 빨리 시정해서 우리가 균형적인 이러한 배치를 했을 적에 불만요소가 없고 교육이 화합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깐 그것을 배려해서 가지고 국장님이 여론도 수렴해 가지고 교육감님에게 건의하셔 가지고 이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교육감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은 저에게 전화가 온 것 중에 진천교육청, 단양교육청, 옥천교육청 중등 교장선생님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왜 우리 군은 초등만 교육장을 해야 되느냐, 우리 중등

에서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 그래서 제가 행정질문 때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뭐에 해당하느냐, 기회균등 차원에서 진천군은 초등에서만 교육장을 전부 매년 마다 하니까 중등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은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기회균등 차원에서도 빨리 시정돼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교육감님께서는 9월부터 이러한 문제를, 강원도 같은 데는 전부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안하는 곳도 아주 균형적으로, 여기 통계자료를 전부 가지고 왔으니깐 달라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9월부터 시행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천호**

아까 고규강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심도있는 그런 연구를 못했습니다. 문제점 인지는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말씀 드린 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불균형을 해소하고, 또 기회균등이라는 이런 대원칙에도 부합되는 인사정책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일부터 시행여부를 물으시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를 마련하는 시간은

기간이 좀 넉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준비가 되면 하겠습니까만은 만약에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 때는 그 다음 정기회 인사 기회 때 반영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고규강 위원**

감사합니다.

농진지역 학교에 대해서 국장님에게, 교육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진지역의 지정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진지역을 지정하는 목적.

● **교육국장 반창남**

아까 제가 답변시에 말씀드렸는데 농촌 학교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선생님들에게 보다 근무여건이 나쁜데도 열심히 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지원체제 속의 한 분야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고규강 위원**

농진학교 지정은 이제 농촌의 인구감소와 열악한 교육환경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촌학교를 진흥시키지 않고는 농촌인구의 감소와 또한 교육의 열악성,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을 한 것인데, 지금 여기 답변할 적에 현재로는 국가에서 법률로 정한 벽지학교가 지정 해제될 경우에 한하여 농진지역 가산점 부여 학교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법으로 제정한 것이 아니라 농진지역은 예규입니다, 예규. 이거 조례도 아닙니다, 법이 아닙니다, 예규, 예규라는 것은 도교육청 교육감 재량에 의해서 형평성에 맞게 다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법으로 제정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지침요령하고 조건이 있는데 지금 지정한 학교 외에 지정이 되지 않은 농진학교 중에서 소규모로 학교 돼서 1년이면 여섯 명 교사가 전원 내신을 내가지고 1년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 도교육청에서 신규발령을 나이 먹은 선생님들 이런 분들 배치해 가지고, 1년이면 또 가니까, 그 학부형님들하고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이 학교운영이 어려운 지경에 있고, 또 학교를 신뢰하지 못하고 수업이 되지 않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 농진지역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예규니까 얼마든지 교육감님께서 재조사 해서 지금 있는 학교 외에 더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법률로 제정한 게 아니라, 법에 위반되는 게 아니라.

따라서, 농진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학을 가지 않고 그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훌륭한 선생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농진지역으로 한두 학교씩 더 지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반창남

예, 교육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규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진지역은 법률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앞으로 농진지역을 추가 지정할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벽지학교가 읍성에 덕생분교장이 있는데 벽지학교가 해제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농진지역으로 지정하겠다, 이러한 답변입니다. 법으로 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그리고 예규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이것을 풀어 놓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쯤에서 정부에서 농어촌 교육특별진흥법이라는 것을 만들겠다고 지금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교육특별진흥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하는 것과 같이 발맞추어서 저희도 이때 농진지역을 확대할 건지, 그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규강 위원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뭐냐하면은 이 농진지역의 지정은 근무평정 가산점의 근거에 의거해서 이것을 예규로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세 가지 지침방침과 심의 규정이 세 가지 있는데 이것은 1주일 안이라도 다시 만들어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문제점이 생길 것도 생기지만은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농진지역은 그대로 놔두고 문제가 되는 학교를 다시 조사해서 더 지정을 해 주면 되는 겁니다, 예규로, 예규로다.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왜 중앙에 맨날 법률 찾고 농진법 찾고, 교육감의 고유 권한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서 농진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건데 중앙의 눈치를 왜 봅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농진학교에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는 각 시·군의 한두 학교씩은 더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이 안되는데. 고유한 교육감의 권한을 그럴 때 활용하는 거지 언제 활용합니까.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다시 교육청 별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학교가 운영 안 되는 이러한 소규모 농진학교는 농진지정 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내규를 만들어 가지고, 몇 가지 바꾸면 다 되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일

예, 고규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남훈 위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남훈 위원
있습니다.

● 의장 이상일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훈 위원
제가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 전부 추가질문 해도 됩니까?

● 의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 김남훈 위원
저는 농촌 소규모 학교 급당 학생수 조정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답변에서 2004학년부터는 복식학급 편성기준을 하향 조정하고자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학생수라고 하는 것이, 급당 학생수라고 하는 것이 시 단위에서는 그렇게 한 명, 두 명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농촌학교 소재를 둔 학교에서는 학생수 한 명이 굉장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한 명 때문에 학급수가 존속하느냐 안하느냐, 나아가서는 학교가 존속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그런 시점에 와서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2004학년부터 실시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감 김천호
제가 답변드릴까요?

● 김남훈 위원
예, 교육감님.....

● 교육감 김천호
예,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학생 한 명 가지고 학급이 유지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또 학교가 자체가 지탱되느냐 안되느냐 이렇게 심각한 문제로 봉착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정말로 소규모 학교에 학급당 학생수 정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시지만은 강조해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생수가 적을수록 좋고, 또 기준을 낮추면 좋지만은 그만큼 학급수가 몇 명 때문에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적인 그런 부담, 교육적인 예산소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늘실무를 맡은 저희들은 양면성을 고려해서 적정성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답변드리기는 검토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기준이 학급당 8명으로 되어 있고, 두 개 학년 합쳐서 16명 이하일 경우에 복식학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

[제153회-제3차 본회의]

금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에 적용하려고 검토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급당 학생수를 한 명 내리는 7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남훈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기획관리과장님, 지금 급당 상한선이 8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학교에 9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복식학급 편성기준이 8명입니다. 그러니까 8명부터 복식학급에 해당됩니다.

● 김남훈 위원

그렇죠? 8명부터.

●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예, 그렇습니다.

● 김남훈 위원

그러니까 9명이 돼야지만 지금 한 학급이 존속되는 거죠?

●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자꾸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 학급당 편성기준을 현행 8명에서 하향 조정해서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김남훈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9명 이상이 한 학급이 존속이 되는데 8명 내지는 7명으로 해서 그 학급을 하향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명년에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감 김천호

노력하겠습니다.

● 김남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교육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개교한 흥덕, 서원, 주성 고등학교에 통학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이 통학버스를 갖다가 여기에 1년 경비만 말씀해 주셨는데 학부모하고 합의한 사항을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1년만 경비를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3년 아닙니까?

● 교육국장 반창남

예, 3년 동안 통학버스 편의를 제공한다고 답변했습니다.

● 김남훈 위원

앞으로 여기 답변에 앞으로 교통편의 제공 문제가 신설학교에서 앞으로는 우리 본청에서 시청이나 이런 데 건의를 해서 통학버스나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내년부터 그 학교에 대중교통

수단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데도 불구하고 3년간 합의를 해 줬기 때문에 3년 동안 7,500만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 교육국장 반창남

우선 1년 동안은 250만원씩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시청하고 교통시내버스 노선을 변경해서 하루에 한 20차례 이렇게 가면은 그 통학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될 시점에 와 있다, 그럴 때는 별도로 설명회를 해서 논의를 해 보겠다, 그런 부수조항을 넣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현재는 버스노선이 증차가 되고 그래서 다소 처음보다는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입시문제도 해결이 되고 하면은 그 버스노선 문제는 해소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남훈 위원

지금 현재 3년 동안 합의를 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대중교통 수단이 완화가 된 다라면은 다시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해서, 3년으로 합의를 해 줬지만 이것을 갖다가 1년 내지 2년으로다가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와 똑같은 사건이 제가 알기에는 중등 쪽에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초등학교인가요, 여기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

생했을 적에 학부모들이 학교도 찾아오고 교육청으로 찾아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만하게 학교와 학부모가 원만하게 해결해서 그것은 해결을 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이 고등학교 쪽만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고, 또 이것인 1년도 아닌 3년까지 합의를 봐 줬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사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서 합의를 해 주신 것이 아닌가, 만일에 다른 학교에서도 그것을 집단행동을 일으켰을 경우에 또 이와 같은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의구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문제가 바로 학부모간에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다음은 또 역시 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지정종목에 대해서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도 질문을 드렸고, 이번에 행정질문도 제가 드렸는데, 여기 답변에 보면은 지역교육청별 초등학교 6학급, 전교생 70명 이하와 중·고등학교 3학급 전교생 50명 이하 학교에는 단체종목을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 교육국장 반창남

예, 그렇습니다.

● 김남훈 위원

이것이 사실입니까?

● 교육국장 반창남

예

● 김남훈 위원

그런데 제가 각 학교에 70명 이하 50명 이하 학교에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도 지정종목이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단체종목이라 하면은 그 개념을 2인 이상이 모여서 하는 것이 단체종목일텐데 그런 학교가 없습니까?

● 교육국장 반창남

예,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제 학교별로 교기라는 게 있습니다, 교기.

예를 들어서 한 200명 있을 때부터 죽 내려왔던 학교의 전통종목이 있습니다. 그래 그것은 먼 소재지 이하, 6학급 혹은 3학급 이하는 단체종목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전통적인 교기종목으로 이어왔던 학교는 그대로 하는 학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 김남훈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학교에서 교기로 내려오는 종목을 가지고서 제가 구분을 못해서 지금 질문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일선학교 실정을 보면요 과

거에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서부터 그 지정종목을 갖다가 정했을 당시에는 학생수가 보통 2,3백 명 선은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에 따라서 지정종목을 부여했는데, 지금 농촌학교, 지금 현재, 아까 고규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 단양이라든지 보은이라든지 옥천이라든지 이런 학교 쪽에는, 진천 쪽에는 농촌학교가 100명 넘어가는 학교가 다섯 군데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한 학년에 열 명도 안되는 학년이 많이 있는데 그 열 명도 안되는 인원을 가지고서 단체종목 지정을 받았다 이거예요. 도에서 지정을 받은 종목을 말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그 학교 자체적으로다가 육성할 그런 단체종목이 아니고 도에서 공문지시를 해서 그것을 갖다가 해 놓고 만약에 단체종목을 부여받고서 출전을 하지 않으면 사유서를 내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단체종목을 그런 개념 쪽에서 묻는 거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단체종목이 아니예요. 그래서 이 말이 사실이라면은 그보다 다행한 일이 없겠지만 만의 하나 아직도 단체종목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다시 재조정해서 실정에 맞게 조정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학교별보다 죽 해 놓은 것을

보니까, 그러니까 2002년 9월 1일 이후하고 이전하고 비교해서 좀 해달라고 했는데 한 시·군에 하나, 둘, 이 정도밖에 없어요. 이 정도 없어지고 다시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에요. 이거라고 하는 것은 재조정되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신설 학교에 신규종목 지정해 주고, 폐교학교에 지정종목 없애고, 그거밖에 안된다 이거예요, 제가 이 도표로 볼 적에는.

그래서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 써 있는 대로, 답변하신 대로 다시 한번 학교 현장을 갔다가 조사해서 단체종목을 정말로, 다섯 명 가지고 단체종목을 운영할 수 없고, 열 명 가지고 단체종목 운영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 교육국장 반창남

예, 답변드린 대로 금년도 9월 1일 이후에 다시 2차 조정계획을 세워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소규모 학교의 지정종목이 운영되지 않고, 또 연계되지 않는 종목이 운영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남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일

김남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성영용 위원님 보충질문 있으

십니까?

● 성영용 위원

예, 있습니다.

● 의장 이상일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영용 위원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교육감님 및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말씀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바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영재교육을 이끌어갈 유능한 교원을 위해서 2002년도에 영재학급 지도자료를 배부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자료를 하나 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2)

(끝에 실음)

● 교육감 김천호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다음은 교육국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 중 2002년도 10월 21일 제146회 정기회 4일차 회의 때 시·읍단위 중심학교를 선호할 수 있도록 가산점을 인정하는 인센티브 제공에 필요한 관련규정을 추진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요구한 것은 실적입니다. 여기에 2002년도 6월 25일날 개정해서 적용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인 2000년 10월 21일날 제가 질문을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실적을 요구한 겁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자료를 다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2)

(끝에 실음)

다음 마찬가지로 교육국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독서교육에 대해서 과목별, 단위별 자료실 수업을 위한 포괄적인 읽기자료, 그리고 독서신문 등의 나름대로 창의적인 독서활동의 운영이 현실화 될 수 있는 그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오늘 대답에는 없습니다.

또 과목별, 교과목별, 교과별 지도자료로서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대답이 없고, 대답을 상당히 많이 비켜나간 기분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전문성이 많이 필요로 하는데, 물론 전문성을 다 얘기하시려면 상당히 어려워서 개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히 기술적이나

재원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서 이것은 미리 이럴 때 풀어놓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해서 물어본 사항인데, 깊이 얘기를 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방안은 즉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청소년 지도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에는 연구가산점만 얘기해 주셨습니다. 연구가산점과 가산점 관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가산점은 제가 물론 연구가산점에 관한 자료도 갖고 있습니다. 지난 평생체육과 82500-280, 2003년 3월 12일날 배부한 연구대회 추진계획에 의해서 제목이 2003년도 청소년 수련활동 분야 연계 추진계획 관계인데, 여기에서 나타난 것은 연구가산점입니다. 여기에서 이게 아니라 제가 질문한 것은 타 시·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가 있나, 우리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의향이 있나, 없으면은 타 시·도에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데가 있으면 파약을 해서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 관계나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상당히 저로서는 제 질문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대답을 얻지 못해서 허전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다음에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반창남**

일괄적으로 제가 좀 보완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 단위 학교, 중심학교, 시·군 단위별 중심학교,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2)**

(끝에 실음)

그 다음에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교과별, 단원별 지도자료, 이것은 전국 시·도와 공히 공통자료를 개발하고 케리스사하고 같이 개발을 해서 금년 말쯤에는 아마 좋은 자료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가 나와서 보급되는 대로 일부 저희가 지도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그렇게 지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교사 인센티브 제도, 가산점을 주고 있는 학교는 경기도, 경상북도, 충남,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 추진 중인 도는 부산광역시, 강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1년도 11월달에 승진 가산점이 교육감 가산점 제도로 바뀌는 바람에 일선 학교에 제가 설문조사를 실

시해서 청소년단체 담당 지도교사에게 승진가산점 제도를 부여하자, 그렇게 했더니 95%가 반대를 했고, 세 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서도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래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성영용 위원님께서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인센티브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방향을 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다시 저희가 이 문제 교육감님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은 타 시·도의 제도를 우리 도에도 접목시켜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을 수 없는가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상일**

성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송대헌 위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송대헌 위원**

예, 있습니다.

● **의장 이상일**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대헌 위원**

송대헌 교육위원입니다.

집행청이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

니다.

첫 번째, 교단갈등의 교육행정시스템 나이스(NEIS)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관련된 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공식문서가 접수되면 이를 기초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여 일선 학교 현장의 정상적 학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연한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간략하게 교육감님께 여쭙 보고자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극한 대립 양상을 보였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교무, 학사, 보건, 진·입학 등 3개 영역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기로 협의했다, 그러나 또 다른 축인 한국교총은 이번 합의가 확정될 경우 C/S 업무에 대한 거부운동, 행정정보위원회의 탈퇴, 정부정책의 불복종 운동, 정책 실패 책임 규명 활동 등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말 없이 묵묵하게 열심히 일하는 일선 교사가 보입니다. 또 그 뒤에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학부모님들의 눈망울이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 현장의

교육갈등이 비춰지는 모습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이런 학부모라든가 이런 선생님들을 생각해서 한 말씀 첨부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교육감 김천호

지금 송대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련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 논의의 취지는 학교 현장 실태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의 지도를 잘 해서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실시해 줘야 될 현장 교육의 책임자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막중한 책임감과 또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좋은 방안을 모색을 하고, 그것을 관계기관에 협의를 해서 좋은 시책이 마련되고 실시되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공개됐습니다만은 그때는 세 가지 의견이 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전국의 학교현장이 많은 부분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즉, 나이스(NEIS)로 이렇게 진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이스(NEIS) 이전 체계

로 다시 이렇게 회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특히 그 어려움이라는 내용 속에는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입을 했고, 또 현장 교사들, 특히 정보를 담당한 정보부장을 중심으로 한 그 학교의 많은 교원들의 노력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 더욱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런 정책 변화로 인해서 학생 교육에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런 우려의 표명이 중요한 협의의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 의견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작해서 정부에서 일관성이 있고 그래서 교원들의 업무를 경감시키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이런 시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저희 생각에는 그러한 의견에서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말씀드리고, 다만, 아까 여기 먼저 답변드린 내용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원단체와의 협의사항에 보면은 12월, 2003년 12월 말일까지 정보전문가, 교육전문가, 현장 교사 등등 많은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합의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말로 교원의 업무를 경감시키고 학생교육을 효율적으로 가져

올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이 12월 말까지 마련돼서 제시가 된다면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여기다가 적시를 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중복의 경우도 지금 98%, 99%에 가까운 이런 교육행정전산망 구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활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관된 정책이 즉시속됐으면 하는 것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송대헌 위원

예,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말씀 고맙고요, 거기 보충해서 박상환 교육정보화과장님께 조금만 여쭙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C/S 자료가 2002년 12월 중순부터 나이스(NEIS) 자료로 전환되었는데 이제 다시 나이스(NEIS) 자료를 C/S 자료로 한번 더 전환하려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계획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있다면 프로그램 개발비용은 얼마나 되고, 시간은 얼마나 될는지, 추산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곧 C/S에서 나이스

(NEIS)로 간 이관 프로그램인데 그것을 다시 C/S로 보내는 것은 역 컴버전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체로 이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상당한 그러한 성능을 가진 내용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여기에 따른 문제는 그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또 학교 현장의 사용자들한테 그 교육을 해서 학교현장에서 역 컴버전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데는 저희들 생각에 약 6개월이 걸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당한 금액도 있지만 그 노력이나 이런 걸로 볼 때 현재 어려운 상태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답변 올렸습니다.

● 송대헌 위원

6개월 소요된다는 말씀이시죠?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예

● 송대헌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합의를 하여도 다른 영역, 나이스(NEIS) 업무를 보려면, 다른 영역의 나이스(NEIS), 예를 들면 교원인사의 출장이

라든가, 조퇴, 예를 들면, 보려면 교원의 나이스(NEIS) 인증이 필요한데 학교장도 어느 교사가 나이스(NEIS)를 인증받았다가 인증을 폐기하였는지를 본인의 말 이외에는 알 수 없다고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인증 거부자와 인증 폐기자의 현황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우리 도에.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육부 통계상입니다.

이것은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 측정되는 내용이지 저희들이 임의로 산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99.1%가 전자인증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그 중에 일부 교사들이 “나는 이거에 찬동할 수 없다.” 하고 폐기시킨 자가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인증을 받았고, 패스워드를 만들었고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인증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몇몇 사람이 거기서 협력을 하는 것은 저희들도 확실한 숫자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은 재발급의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발급해 주고 있고, 쉽게 말씀드려서 제천, 단양 쪽의 소규모 학교는 그러한 것을 반대하는 교직원체에 있는 분들이 모두 일을 나이스(NEIS)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의 애

기지 저희들 지금 통계상 시스템에 나타난 것은 발급자가 99.1%로 전국에서 상위 숫자에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 송대헌 위원

통계상 99.1%라는 말씀이지요?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예, 그렇습니다.

● 송대헌 위원

한 가지 더, 지금 3월 이후에 우리 나이스(NEIS) 운영을 하면서, 99.1% 하면서 학교의 교무일지 지금 나이스 운영하고 있습니까? 교무일지.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지금 현재 100% 나이스 체제로 가는 학교는, 저희들이 오늘 통계입니다 이것도, 94%가 나이스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 송대헌 위원

교무일지를 좀 여쭙보는 겁니다.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교무일지를, 그것이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이제 그쪽으로 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것을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학교가 6% 정도, 27개 정도 있습니다.

● 송대헌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6%가 아니라 교무일지 전혀 작성을 못한다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쭙보겠습니다.

교무일지 뿐만 아니라 중간고사 성적 처리가 나이스(NEIS)에 지금 어느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4월 11일날 전면 시행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야기한 뒤에 곧 이어서 중간고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시입학에 대한 이 생활기록부상 성적이 들어가는 것이 저희들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 5월 20일 현재 70%의 학교가 성적 입력을 끝낸 걸로, 고등학교 대상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 송대헌 위원

고3을 제외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송대헌 위원

저하고 통계가 좀 차이가 나는데.....

● 교육국장 반창남

가만있어요, 그것은 제가 정정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송대헌 위원

예, 말씀하시죠.

● 교육국장 반창남

오늘 단재에서 교무부장 선택중심 교육과정 이제 내년에 3학년까지 되기 때문에 교과목 조정이 학생들 희망자가 늘어서

선생님 수요를 어떻게 할 거냐고 일부 예비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연찬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오늘 현재 수시모집 대입학전형자료가 나이스(NEIS)로 완결된 학교가 96.1%입니다, 74개교, 77개교에서.

C/S로 가는 학교가 3개교, 3.9%,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7개교 중에 74개교, 고등학교가, 실업, 인문 합쳐서 대입전형자료를 나이스로 완전히 입력해 놨습니다.

● 송대헌 위원

본 위원이 아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 부분입니다, 한 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실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린 건데, 제가 그쪽에 과문해서, 우리 정보화과장님처럼 여러 가지 조예가 많으면 여쭙볼 것도 없는데 지금 나이스(NEIS) 체제에서 교무일지를 쓴다든가, 성적을 올린다든가, 전입학을 한다든가, 출결을 할 적에 본인이 인증을 한 사람이라도 안하면 돌아갈 수 없다고 이렇게 저는 또 알고 있고요, 그것을 대리로 넣어줄 수 있다고 하는데 대리에도 한계영역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결국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전 우리 교원들이 공감을 하지 않으면 나이스 체제 운영에 대리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 부

분은 대단히 앞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이스(NEIS) 체제를 계속 운영하느냐, C/S로 바꾸느냐, 그저 한 300명이나 200명 설득해서 대리로 넣는다, 교육력이 집합할 수가 없습니다, 대리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우리의 중요한 문제가 있거든요. 합일돼야 되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과문해서 몰라가지고 잘못된 생각이려면 참으로 다행이겠습니다. 사실 그런 것인지, 한 학교에 한두 선생님이라도 적극적으로 인증을 안하고 이것을 참석을 안하면 그 체제가 돌아가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인지 자리를 빌어서 속 시원하게, 정보과장님 조예가 많을 거 아닙니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송대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과 꼭 같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없습니다. 아주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현 시스템의 운영방향이나 모든 걸로 볼 때 아주 맞는 말씀입니다.

현재 학교에서 대리적으로, 또는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전교조 단체의 국장이나 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내 명분을 봐서도 나는 지금 거기할 수 없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시내학교를 고등학교만 주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가 있는데, 현재 학교장 선생님들의 그 대응책으로써 교과담임이나 또는 기간제교사, 부담임, 이런 분들을 통해서 현재 나이스(NEIS) 쪽으로 일을 추진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저는 가서 이 분들이 계속적으로 할 때 권한부여라든가 또 말씀하신 그런 업무방향에 위배되는데 이것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하면 소리를 냅다 지룹니다. 지금 학교에서 어떻게든지 합의를 해서 나이스(NEIS)로 가려고 이러한 방법을 치르는데, 또 제2의 그것까지 우리한테 얘기하면 어떠냐 할 때 저도 상당히 당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학교현장 교장선생님들께서 잘 대응을 해 주셔서 지금 이런 숫자가 나온 겁니다. 지금 대입전형자료도 지금 실업계 두 학교, 인문계 한 학교만 C/S 쪽에서 자료를 빼서 수기로 하겠다고 하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74개 학교는 나이스(NEIS)로, 또 급한 것은 밤을 세우더라도 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송대헌 위원

앞으시죠, 정보화과장님.
바로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결국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제가 질문했던 교단갈등과 대립에 대한 아주 좋은 시책과 방안도 아까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실현이 돼서 우리 교육감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충북 교육가족 모두가 힘을 합치는 교육력이 돼야 되겠는데 지금 정보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이스(NEIS) 제도 하나만 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뭐 교단에서 갈등과제들이 있는 것은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해법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어떠한 유형이라도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어른들의 목소리를 누구를 막론하고 이제 그쳐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저는 보고요, 결국 최종 어떤 중요한 시책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이해 당사자 모두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모든 시책이 결정돼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중요한 나이스(NEIS) 문제가 한 사람만이 거부해도 돌아갈 수 없는 제도를 2년 전에 우리는 합의를 하지 못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52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쏟아 댔습니다. 지금 막상 시행단계에서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생각하셔서 앞으로 교육감님 좋은 시책을 충북에도 많이 펼치실 걸로 압니다. 좋은 시책을 하실 적에는 그 계획단계에 우리 교육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주시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학부모, 학생,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검토해서 이와 같은 시행착오가 두 번 다시 일어나

지 말아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요 교육의 연속성과 헌법에 보장한 교육은 중립성입니다.

교육이 정치적인 논리로 인해서 우지왈 좌지왈 되는 그런 부분은 우리 교육감님 앞장서서 막아주시고, 교육감님의 소신과 철학과 원칙에 의해서 일관성 있는 충북 교육을 해 주시기를 저희들은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끝으로 하실 말씀 한 말씀 더 덧붙였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감 김천호

지금 송대헌 위원님 개진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면서, 두 가지만 저한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교육계 내부에 항상 생명력 있는 유기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존재하고 갈등은 건전한 유기체의 반증이다, 이런 면에서 저는 상당히 의미를 두고 행정의 중요한 목적을 갈등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시한, 정보전문가, 교육전문가, 그리고 현장 교사 등등 많은 관련자들의 의견을 12월 말까지 수렴을 해서 최선책의 의견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발표는, 합의문 발표는 바로 갈

등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의 제시다, 저는 그렇게 보면서, 좋은 대안이 마련되기를 이렇게 기대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될 때 금년 12월 말까지 그런 것이 될 때, 제시 될 때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의견의 표현이었고, 지금 현재까지의 저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9.1%의 인증 비율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바로 말씀드린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77개교 중에 74개교가 나이스(NEIS)로 전문자료를 제출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된 이런 현장의 실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일관된 정책을 지탱해야 되겠다 하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갈등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중요한 방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작의 시행단계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시책을 준비하고 계획할 때 참여행정의 원칙에 따라서 관계되는 많은 교육가족들이 참여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드려서 과정을 중시하는 충북교육행정이 되고, 대화행정을 바탕으로 하는 이런 정책을 지속해 가지고 충북교육의 모든 정책들이 시작을 아주 올바른 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행정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송대헌 위원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갔습니다만은, 의장님,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이상일

예

● 송대헌 위원

예, 고맙습니다.

두 번째 제가 질문을 했던 음란메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답변에서 실적도 많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 지도한 내용으로서는 모든 학교의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이 내장된 캐쉬서버를 보급하여 차단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가정의 컴퓨터가 문제다 하는 말씀도 하셨고, 또 음란메일에 대해서, 스팸메일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제어 수단이 없는 실정이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청소년의 유해사이트 접근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정통부에서 마련 중에 있다, 문제는 바로 그 문제거든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한테도 무분별하게 가는 그 스팸메일이 우리 사랑하는 아들딸들이 무심코 열었던 컴퓨터에서 여자의 알몸뚱이가 나왔다고 상상을 해 보세요. 그 마음의 충격과 치유는 우리가 다른 어떤 수단으로도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늦출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은 실적을 도교육청에서 2002

년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파악한 이 스팸메일이나 불량 사이트 접속이라든가 이런 실태는 도교육청이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담당관님 그것부터 말씀해 보세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죠.

● 교육국장 반창남

예, 교육국장입니다.

제가 이 스팸메일 접속이나 접수 실태를 파악하려고 했습니다만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인권이니 정보보호니 이런 거에 또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그 자료를 제가 제공해 드렸습니다.

● 송대헌 위원

봤습니다, 국장님. 알겠는데요,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의 정서발달이라든가 인성 발달이라든가 한번 초기에 망가지면 평생 망가집니다. 그런데 인권도 중요하겠죠, 개인정보도. 그러나 우리가 교육적 차원에서 우리 아이들의 실태를, 물론 도교육청이 아닌 학교 담임선생님 선에서라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최선의 방지 프로그램이 없다고 하면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이 보여야 되는데, 일선 학교 현장의 선생님 소리나 도교육청이나

교육청의 소리를 들어보면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이런 것들이 바로 차단 봉쇄 프로그램도 나오고 곧 될 겁니다 하지 사실은 그 뒤에 질문드린 생활지도 영역에 뭐 합동교외생활과 연관된 문제입니다만 합동교외생활 백 번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합동생활지도라고 해서 지도비를 세워가지고 학교마다 추정해 가지고 내 가지고 다니고, 여름방학 때 불량을 방지하기 위해서 캠프를 설치하는 이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생활지도 영역이나 방법이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 부분도 바로 그런 뜻에서 올린 말씀입니다. 뭐 교육청에서 그런 일을 손놓았다는 게 아니라 지적할 실적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너무 엄청난 문제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좀 크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도 잘 나온다고 하는데, 좀 더 예산도 투입하시고 조직적으로 분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해야 될 걸로 사료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반창남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

면서 금년 하반기까지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송대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왕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지도 캠프 관계, 하반기 여름방학 때 합니다. 또, 합동생활지도라고 저도 과거에 교단에 있을 적에 청주시 교외생활 합동지도 반이 편성이 돼 가지고 야간에도 다녀보고 또 학교마다 일정금액을 내고 하는데 그 합동지도 단속하는 것이라든가 캠프가 지금도 계속 하고 있죠?

● 교육국장 반창남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 송대헌 위원

안하는 것보다 낫겠죠, 안하는 것보다 낫고 좋은 제도라고도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이렇게 해 보신 것이 있으십니까?

● 교육국장 반창남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2)

(끝에 실음)

● 송대헌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 부분이 분석 좀 해 보시고, 과연 이

시대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는가, 그 생활지도비를 걷어서 교외생활담당 주무 학교에서 어떠한 사업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실태를 파악하셔서 개선점이 있다고 한다면 개선방안을 찾아주십사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요구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 치코 캠퍼스 현지 어학 연수에 대해서 시간이 좀 갔습시다만은 간략하게 여쭙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충북의 자랑입니다, 사실은. 타시·도 부러워하는 제도입니다. 가장 많은 인원이 현지 어학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충북의 우리 영어선생님들의 많은 회화능력이라든가 연수 이수해 영어 신장을 가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또 그만큼 돈을 들여 투자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15년 됐으니깐요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간의 치코대학 하고 우리가 협정을 맺어서 계속 그것을 하고 있는데 도출되는 문제점이 더러 몇 가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간략하게, 100% 제 말씀이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2002년도 작년 계약서를 제가 요구한 것이 작년 계약서를 썼더군요. 계약서를 보면 교사는 연수비 및 왕복 항공료가 지원되죠, 교사에게는, 100% 지원되는데, 학생에게는 50%, 학생연수비에는 항공료

의 50%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것이 거꾸로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학생은 항공료라든가 연수비가 100% 지원되고, 물론 교사, 학생 다 100% 지원되면 가장 이상적이겠고, 예산이 도저히 넉넉지 않는다면 학생에게 100% 지급을 하고 교사에게는 50%나 70%, 아니면 90% 지원을 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는가.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가난한 아이가 영어에 특출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아이 하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이가, 자기가 50% 낼 수 있는 돈이 없어서 그 연수에 참여할 수 없다면은 오히려 그 아이들에게 100% 다 지원을 하고, 우리 선생님들은 그래도 경제수준이 아이보다 낮다고 해서 그런 생각을 해 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4주 다음에 주말여행과 1주간의 문화체험을 실시하는데 학생도 실시합니까?

● 교육국장 반창남

예, 학생은 희망하는 학생, 교사도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합니다.

● 송대현 위원

계획서를 보니까 희망하는 선생님과 희망하는 학생에게 주말여행도 시키고, 또 다 끝난 다음에, 4주가 끝난 다음에 한 1주 동안 문화체험을 할 적에도 희망하는

학생과 희망하는 교사가 하는데, 현재 우리가 지난해 실시해 본 결과로 보서는 희망율이 100%입니까, 아니면 절반입니까?

● 교육국장 반창남

정확한 숫자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2)

(끝에 실음)

● 송대헌 위원

그런 것은 거개왈 다 참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왕 미국까지 갔는데 '야, 1주일 동안 미국의 문화체험도 해야 되겠다.' 해서 학생이나 교사가 다 참여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쭙본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에게도, 이것은 순전히 자비거든요, 자비로다가 하는데 학생에게 오히려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선생님은 뭐 자비로 하시더라도 학생에게는 이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방안은 없겠는가. 위에 질문 항목과 같은 맥락에서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더 하면 교사연수에서 장기간이거든요, 4주, 문화체험까지 하면 5, 6주 되는데, 이렇게 장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국외연수 기간이 법적근거가 없어서 일반연수나 자격연수, 또는 자격연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

다. 그렇죠?

● 교육국장 반창남

일반연수 혜택은 줍니다, 저희가.

● 송대헌 위원

일반연수로 나갑니까?

● 교육국장 반창남

예, 그렇습니다.

대학하고 교육청하고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연수기관으로 지정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일반연수 연수 이수 학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송대헌 위원

예, 많이 개선되었네요.

오래 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근거가 없다고 해서 국외연수기관 지정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제가 이것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국외연수기관 지정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한다면 타 시·도에서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국내연수기관과 연계해서 국내에서 한 2주,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잉글리쉬 빌리지 같은 것을 2주 하고 한 2주나 3주를 미국 현지에 가서 하면서 국내연수 프로그램과 연계·운영해서 이수증이 나가고 효력을 발생하고 그래서 또 외화도 절약하고 연수의 효과도 극대화시키는 타 시·도의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

쫓았는데 대개 우리는 일반연수 효력을 주는 것을 저한테 근거라든가 관계 서류를 좀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2)

(끝에 실음)

그 다음에 교사연수대상자 추천기준에서 보면 연수후 5년 이내에 퇴직하거나 타 시·도 진출하는 경우에는 연수지원한 연수지도 경비를 환불하도록 되어 있는데 환불한 예가 있습니까?

● 교육국장 반창남

예, 아직 없습니다.

● 송대헌 위원

아직 없습니까?

● 교육국장 반창남

예

● 송대헌 위원

다행인데, 혹시 환불할 그런 케이스가 생기더라도, 큰 뜻으로 보면 우리 도에서 연수비는 지불했지만은 타 시·도에 가서도 영어를 잘 가르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조항이 살아있더라구요, 지금 그 계획서에 보니까, 이런 부분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특별히 주문하고 싶은 것은 학생연

수대상자 선발에 있어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아이가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로는 학생들 선발을 어떻게 하십니까?

● 교육국장 반창남

우선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으로 희망을 신청하면은 지역교육청에서 1차적으로 그 시험을 봐가지고 걸립니다, 숫자를. 그래서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도교육청에 와서 저희가 2차로 선발시험을 보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외국인하고 대화도 하고 그래서 대충 보면은 지역별로 청주시가 제일 많고, 그러니까 시지역하고 읍지역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시·군은 한 명도 없는 시·군이 있을 수 있고 대충 그렇습니다.

● 송대헌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치코대학의 현지 어학연수가 지금 시대적인 국제화, 세계화 사회에서 절실히 필요하고 우리 도교육청의 자랑거리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더욱 발전되어야 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만은 아까 15년 동안의 장기화해서 노하우가 생겼다는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렇게 장기간의 같은 프로그램, 지금 또 초등학교 또 교사팀하

고 나눠서 두 개 반으로 운영합니다만은 조금 교육과정의 프로그램을 개선한다든가 연수의 방법과 내용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 교육감 김천호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15년 동안 연수를 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노하우가 쌓였고, 그리고 또 하나 치코대학 자체가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정말로 어떤, 어느 연수기관보다도 효율적으로 연수를 해 주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국내연수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잉글리쉬 빌리지, 잉글리쉬 캠프, 이런 것을 강화해서 외국에 가는 효과 이상의 외국어 연수 기회를 제공해서 정말로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송대현 위원

예, 교육감님 고맙습니다.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미안한데, 교육금고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의사국 직원 메모 전달)

● 송대현 위원

예, 시간을 좀 절약하도록 간단히 하겠

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사실은 관리국장께 여러 가지 질문을 여기다 준비를 했는데 지금 메모지가 “시간을 절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의장님의 하달이 있고 해서, 사실 이 질문을 했던 부분도 답변은 기획관리국장님이 하셨지만 김천호 교육감님의, 교육금고가 저는 사안이 조금 중요하다고 봐서 견해를 밝혀 주셔야 하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질문이 국장님이 했던 부분을 생각하고 교육감님께 간단히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답변에 한 말씀 중에서, 관리국장의 답변요지에서 교육위원이 설득이 분명히 안가요. 충청북도가 제일 오래된, 아마 타 시·도 안하는데 충청북도가 제일 첫머리에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이유는 편리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농협하고 있잖아요, 농협하고, 거기를 빼 놓으면 대단히 사업환경이 어렵다, 또 그밖에 아까 한두 가지를 더 했는데 그러한 저한테 제시했던 한 종목, 한 종목의 내용이 제가 질문에서 설명한 필요성 네 가지를 커버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커버할 수 없다. 뭐 여기서 일일이 커버할 수 없는, 첫머리 앞부분에서 제외에 대한 인정을 다 하셨습니다, 관리국장이. 꼭 안전성이라든가 민주성이라든

가, 또 그 네 가지의 필요성에 대한 반론 으로서는 너무 미약한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다 약하고, 교육감님, 네 가지 제 가 그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한번 언제 검토해 보셔서, 이 제도가, 또 지금 모든 게 투명사회입니다. 또 먼저 우리 충청북도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청렴도에 상위 도를 했던 공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속히 시행되어서 우리 귀중한 시민의 돈이 반드시 어떤 은행을 선정하느냐만 제가 교육급고의 조례를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 속에는 어느 은행을, 저도 개인적으로 충청북도 농협이, 다면, 리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빼고 어디를 주겠습니까. 거기 가는 거대 찬성입니다. 그러나 주는 절차나 방법, 거기 여덟 가지 조건의 선정원칙을 딱 그렇게 선정하면 그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투명하게 하고, 공정해야 하고, 이윤도 가고, 지금 제가 필요성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이게 사고가 나면 안되지만은 5,000만원밖에 변상을 못 받습니다, 사고가 났을 적에.

교육감님과 농협단위 지부장과 둘이 계약해서 하는 것 갖고 괜찮겠습니까? 조례를 해서 조례에 위원들이 협의하고 검토하고 안전성 검토해서 설정하는 것이 타

당합니다. 이 부분은 교육감님 간단히 견해를 밝혀주시고, 계속 추진을 하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교육감 김천호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최상위권 결과를 얻은 것은 1만 7천 충북 교육가족과 함께 저는 가장 명예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북교육 행정을 아까 위원님께서 적시하신 대로 투명성이나 객관성이나 민주성, 그런 것이 보장되면서 청렴사회, 또 청렴 국가 의지에 우리가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도 우리 충북교육청은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송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1만 7천 명의 많은 교육가족이 활용을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성도 감안을 해서 정책이 결정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송대현 위원

교육감님의 연구 검토를 잘 기다리고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일

송대현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분 정회한 후에 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 의장 이상일

다음에는 이기수 위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기수 위원

예

● 의장 이상일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수 위원

교육감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내가 권고 겸 질문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 참 큰 공사입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 땅은 빌리고 나머지 예산은 국고에서 받아다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왕 그렇게 어렵게 학생문화회관을 건립하시게 됐는데, 이것을 처음부터 규모를 적게 한다면 앞으로 다시 그것을 확장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이왕 고생하는 김에 규모를 더 크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문드렸는데, 저희가 2003년 4월 18일날 부산학생회관을 우리가 들렀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한 11시쯤 도착해서 그 학생회관을 죽 둘러보고 규모, 또는 거기에 대한 안내말씀도 들었는데, 부산도 우리마냥 부지는 부산시청으로부터 받은 땅입니다. 우리가 직접 들어서 물어보고 둘러봤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규모가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국고가 200억이고 지방비가 81억이고 281억이나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보다 거의 100억 이상 더 들고, 또 여기 답변을 부지 때문에 더 들었다는 얘기는 조금 설득력이 없는 얘기고, 또 한 가지 실내체육관 시설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재원이 더 많이 들었다. 이런 얘기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충북 교육문화회관 이렇게 지으면 실내체육관 우리도 해야 될 겁니다. 학생들이 나와서 비울 때나, 그 외 실내에서 운동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학생들이 특기 활동을 할 때는 그 실내체육관이 없어서는 안될 겁니다. 만약 실내체육관 때문에 더 들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을 보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학생문화회관은 실내체육관 안한다는 얘기냐, 또 수영장 안한다는 얘기냐, 이것은 모든 전국 학생회관이 필수적인 시설인데 그러면 우리 충북학생문화회관에는

그런 것을 전부 빼고서 돈에 맞게끔 그림 만들 거 아니냐,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협소해지고 나중에 건립하고서도 규모가 적기 때문에 다시 신설할 수도 없고 이래 갖고 여러 가지 후회가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 **교육감 김천호**

예, 이기수 위원 질문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규모 문제는 잘 아시는 대로 200억 이상 사업예산이 책정이 될 때는 중앙 투자심사위원회 동의를 필요한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적시하지 않았지만 지금 1단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이 문화회관에는 도청과 협의해서 바이오 전시관을 포함하도록 이렇게 기초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엑스포 전시관 설치,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도하고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쪽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래서, 그래서 실무 접촉을 하고 있는데 아직 본격적인 협의는 앞으로 많은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체육시설을 포함한 그 문화시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되 지금 우려하신 대로 190억 가지고는 그런 충분한 시설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가지

고 있는 것은 그 7,000명 속에 1단계 공사를 마치고, 2단계 공사까지도 구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단계 그 계획 속에 체육관, 수영장을 포함한 이런 시설까지도 고려를 한 그런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이번은 190억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계획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던 겁니다.

● **이기수 위원**

예, 안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지금 이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산이나 대구, 인천, 광주 같은 데는 사실은 규모가 큼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 데는 약 연건평이 7,046평입니다.

욕심 같아서는 저희도 타 시·도 같이 6,000평이나 7,000평을 하면 좋은데 제일 문제는 그 재원 확보가 문제입니다. 전체를 국고에 거의 의존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국고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재원을 확보하느냐가 문제기 때문에 우선 이미 확보한 특별교부금 45억에다가 내년에 국고금 110억 정도를 더 확보해서 1단계 사업을 벌이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욕심도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더 크게 해서 하고 싶은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래 어떻습니까? 일단 그 규모로 일단락 지을지 또 좀더 크게 구상을 해 갖고 좀더 확장할 생각은 있는지, 거기에 대한.....

● 교육감 김천호

검토는 하겠습니까만은 예산 확보가, 기획관리과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중앙정부에서 다 지원을 받아야 될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앞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중앙투자심사위원회 그 심의과정을 거치더라도 예산확보 전망이 되면은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 학생문화회관 건축에 대한 설계용역비 삭감문제 때문에 먼저도 얘기가 됐었습니다만은 여기는 앞으로 사실 예산을 먼저 승인을 하고 그 다음 사업승인도 사실 나지도 않은 예산을 우리가 예산승인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나중에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예산 승인을 먼저 하고 나서 사업승인이 나지 않았다면 먼저 승인된 예산은 잘못 승인하게 됩니다, 교육위원들이. 그렇게 된다면 집행청에서 예산을 요구한 집행청도 절차

도 모르고 올린 예산 승인요청을 한 것이 되고, 우리도 결국은 사업승인도 안난 예산을 잘못 승인한 결과가 나옵니다. 결국은 지금까지 답변으로 본다면 예산안 승인을 했습니다만은 사업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그 재원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절차를 밟아 갖고 못 쓰는 예산을 왜 올리느냐, 이런 반론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로서도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걸 그것을 삭감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교육위원들 심정도 편치는 않고, 또 절차도 밟아야 되고, 법대로 또 해야 되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승인 하고 나서 거기에 첨부돼 가지고 예산을 올려서 우리한테 승인을 받는다든지, 정 어려울 경우는 사업과 예산을 같이 올려서라도 동시에 시차를 몇시간 차이를 두고서라도 먼저 절차에 맞게끔 사업승인 거치고 예산승인 한다든지, 이런 방법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교육감님이 하신 중에서 흐려져 있어 갖고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감이 기획관리국장에게 “실무적인 답변은 드리세요.” 하고 말함)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저희들이 2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런 다음에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공공시설 계획에 대해서 또 심의를 받고, 사업승인과 동시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190억의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타당성 검사에 필요한 그 용역비가 이번 제1차 추경에 올라옴과 동시에 그 설계비가 같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그 투자심사나 공공시설 이용 계획을 심의받기 전에 설계를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었고, 전문가의 타당성 검사를 제1차 추경이 끝남과 동시에 그 투자심사위원회와 공공시설 이용 계획, 그 다음에 사업승인과 예산을 2차 추경 내지는 3차 추경에 올리는 동시에 설계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승인 자체가 동시에 설계서를 같이 올릴 경우에 저희들이 그만큼 시간적으로 지연이 되기 때문에 다소 한 4,5개월의 시간을 좀 절약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당초에 이 설계 예산을 편성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 심의 때도 많은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

렇게 답변했듯이 이 내용이 어떠한 사업 계획도 설립되기 전에, 승인되기 전에 예산에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흡한 점도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대규모 학생들을 위한 그 시설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절약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예산을 편성했었던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이기수 위원

아니 이 국장님 지금 답변은 말입니다 우이독경식으로 예산 심의할 때 많이 했어요. 내가 그 얘기를 듣자고, 내 이 국장님 말씀의 변명 비슷한 그런 얘기를 예산편성할 당시서부터 내가 그 얘기를 듣자고 하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2년 11월 30일에 뭘니까 20억 이상 200억 미만은 말입니다 중앙투자심사위원회 거치고, 지방투자심사위원회 20억서부터 200억 미만까지는 지방투자심사위원회 거치고, 200억 이상 중앙투자심사위원회 거치는 거야 우리가 그거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급했다든지 하면 그것을 맞춰갖고서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편성 당시에 우리한테 승인해 달라고 요구했던 그때의 그 상황을 다시 반복하는 말씀인데, 제가 그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여기서 이런 질

문을 다시 하겠습니까?

안 과장님 말씀하세요.

●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행위는 그렇고, 저희가 이번에 기본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거쳐서 설립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에 설계용역비를 예산에 계상해서 설계에 착수하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일이 촉박하고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업승인과 예산승인이 같이 올라와도 좋습니다. 같은 회기 내에 올려도 좋으니까, 긴급할 때는 그렇게 해서라도 그제 동시에 처리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알겠습니다.

● 의장 이상일

이 위원님 질문 마치신 겁니까?

● 이기수 위원

이상 질문드렸습니다.

● 의장 이상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진옥경 위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진옥경 위원

예

● 의장 이상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옥경 위원

진천의 농다리와 학생종합야영장 앞을 흐르는 세금천 살리기 운동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교육감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추가로 여쭙볼 것은 지역의 충북여성포럼이라든지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지금 함께 이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단체에 관여하고 있고, 앞으로 교육감님께서 이런 문제를 지나 다른 단체들과 함께 논의하셔서 추진하실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 교육감 김천호

아까 보고드렸던 대로 지금 지방자치단체 진천군에서 그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진천야영장 앞에 학생수련활동을 하면서 그 물놀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사실은 세금천 살리기에 저희들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인 직접 관할 구역인 진천군청이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좋은 뜻을 가진 환경 단체들이 활동을 하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세금천을 살리고, 그 성과가 진천야영장 학생들의 야영활동에도 크게 보탬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옥경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기획관리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지적하겠습니다.

예결산서를 지역 교육 관련 단체에 공개하는 문제,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요, 지금 예결산안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질문을 하니까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 불가능하시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결산서, 확정된 예·결산서는 공개요청이 있을 때 공개하실 수 있으신지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그 예·결산서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면 저를 통해서 자꾸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위원회의 일에 관련할 것인지 어쩐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공개하기도 그렇고, 또 한 부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확정된 것이라도 공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부모 고충전담 전화개설을 제안드렸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 지금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민원실이 도교육청 안에 있는데 민원실의 역할이나 그간의 들어온 민원들의 종류를 즉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해서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전학, 또 입학, 그리고 외국에 가거나 올 때의 학교 수속관련 문의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또 그 학교 안에는 참으로 많은 민원소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몸담고 있는 시민단체의 중앙에 상담실이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 충청북도의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거기에 올라와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해결이 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서울까지 올라갈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지역에서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교단 갈등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교육가족간의 어떤 서로간의 대립을 이렇게 원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음 속에 품고 있게 되는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소통으로써 이런 변화나 이런 것들을 말아서 해 주실 수 있는 데가 어떤 창구든지 마련이 되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민원실은 그런 기능들을 좀 굉장히 소홀히 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민원실을 적극 활용하실 의지라고 저는 답변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러시다면은 매 학년도마다 그 학년초에 가정통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교육청 민원실을 적극 이용해 달라, 이런 안내문을 학부모님들께 일괄 발송해 주시고, 홈페이지도 알려주시고 이리실 의향이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지금 진옥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정통신문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 홈페이지를 통하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저희들 민원안내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또 학교운영위원회 연수라든지, 왜냐하면 이것이 언제 지난번에 고규강 위원님도 질의를 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개혁이라는 것을 하기 위한 전제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상호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구태여 교육청 안이든 밖이든 그것에 개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고쳐나갈 의지나 또 함께 노력하려는 의지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민원실을 통해서 그것이 해결될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 상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디에 안내를 어느 국에다가 그것들이 상의가 될 수 있는지를 안내해 주신다든지 이런 상담기능까지도 조금 추가해서서 적극 홍보해 주시면은 신뢰를 쌓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특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임대하지 않는 폐학교, 폐교를 지역 예술가나 학생들, 이렇게 해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어느 지역의 유명한 예술가께서 저한테 제안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감과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눠도 좋겠지만 이런 문제들은 사실 공공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안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근거조항이 있는데 저는 어려워서 이것이 어떤 것을 실지로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고, 가능하면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그야말로 잡초더미에 그냥 학교가 묻혀있기 보다는 활용되는 것이 낫지 않는가, 이런 말씀이실 때 함께 이런 것을 좀 개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 규정을 좀 쉽게 말씀을 우선 해 주시죠.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입니다.

먼저 지금 말씀하신 근거규정이나 그런 내용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런 데에 명시되어 있는데 어떤 법원적인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것을 소개해 드리면은, 행정재산이라고 하면 공공재산과 공공용재산, 기업재산,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 중에서 정의돼 있는 공공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그리고 주민들의 일반적 공동 이용으로서의 이용을 본래의 소유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렇게 법률적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만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도로나 공원, 하천, 항만, 구거, 이러한 것들을 일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이 공공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만 공공용 재산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폐교가 하나의 예술문화 공간으로서 널리 활용하고 하나의 공공용에 기여한다고 보지만은 개인이,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저희들이 직접 사용할 때는 사용료가 없습니다만은 개인이 이것을 무상으로 이렇게 해서 대부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현재로는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면 여러 인근의 예술가들이 함께

그것들을 사용할 경우는 어떤가요? 한 개인이 아니고 그 인근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예술가들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입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이것은 사용하는 어떤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개인이나, 여기에 따라서 개인이 사용할 경우에는 현행 저기로는 공공용재산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면 그 학교를 그러니까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다시 그것을 문화학교라든지 이런 것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용도 변경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그것은 폐교는 일단은 잡종재산으로,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분류가 되는데, 지금 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 목적이 활용되지 않는 폐교를 그러한 예술문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무엇이나, 이런 것을 여쭙봤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되지 않은 학교가 현재로는 14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 저희들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텐데, 이것은 실제로는 도교육청이 아닌 지역교육청에서 그러한 공간으로 예술문화 공간이나 주민 다수인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의 활용이 제일 바람직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제약이 좀 따르는 것이 하나의 시설을 해야 되고, 거기에 상주하는 인원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많은 수요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의 제한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차제에 14개의 미입대 학교를 유용한 교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연구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면 어떤 그 인근에 지금 계시는 미술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관계부처를 찾아서 함께 상의하고 이런 것들이 공공의 그런 굉장히 문화나 예술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도로라든지 그런 것들은 1차적인 것이지만 우리 지역이 굉장히 예술적으로도 낙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요청들이 또 없었던 것도 아니고 요구가 있습니다. 절박한데, 가능하면 이것들이 좀 실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현행 저희 규정상으로는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요구하신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법 찬조금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충

청북도에는 지금 학교발전기금이라는 그 합법적 창구를 통해서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답변에서도 그렇게 하셨는데요, 저희 교육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홈페이지는 민원성의 글이 잘 올라오지 않는데요, 이것이 학교명을 지칭해서 올라왔고요, 여기서는 찬조금이 아니라 찬조금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학부모의 말씀에 따르자면 교장선생님께서 여러 학부모들 앞에서 학교에 물품을 기증한 학부모들을 공개함으로써 해서 위화감을 조성했다, 또 동심을 멩들게 했다, 이런 민원성의 글을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전부터 아이들을, 뭐 10여 년 됐습니다만 이런 일들은 사실 학교발전기금이 투명한가, 또 합법적인가의 문제와는 별도로 정말 일반 학부모들이 교육계를 불신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교육청이 이런 극성 학부모들이라고 저는 말씀드리는데, 이런 분들을 좀 뭐랄까 진정시킬 수 있는 방안, 그래야지 좀 정말 아까도 송대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정말 하루 벌어서 노동하시는 이런 학부모님들이 마음이 편하게 학교로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런 것들을 감사를 하신다고 그러지만은 도교육청이 적극적

인 의지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근절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입니다.

진옥경 위원님께서 불법찬조금 모금 실태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도교육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 어느 학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98년도에 그 찬조금품이 학교발전기금으로 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 학교발전기금이 모든 것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들이 각종 회의나 어떤 연수시에 발전기금 관리에 대해서는 누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교육청에서 펼치는 밝고 투명한 행정,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서한문도 보내고, 학교에서 어떤 물품, 지금 학교운영비가 그렇게 적은 금액이 아니고 학교운영하는데 적지 않은 금액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운영하는데 발전기금이라는 것은 어떤 학교의 특수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발전기금이 필요한 거지 운영에 필요한 발전기금은 필요하지 않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금 실태가 간혹은 자모

회를 통해서 자생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빚대서 학교를 겨냥해서 자모회에서 참석하면서 자모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불만이 있는 분들이 가끔 전화오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밝히지 않고 학교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 자생조직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저희들이 관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렇지만 그 자생조직이 주로 자모회 같은 거, 아버지회라든지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 그것을 통해서 생겨나는 그야말로 불법적인 문제, 저희들 이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분들이 막 과시를 하거나 또 아이들을,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자모회장을 맡으신 분들의 어떤 자제나 이런 아이들이 졸업할 때 여러 가지 큰 상을 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학교에 대한 기여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을 타고 할 때 참 그런 것들을 뒷전에서 바라보는 일반 학부모들의 심정 같은 것들이 불편하거든요. 그런 것을 그냥 자생조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할 수 없다가 아니라 가능하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있는 분들은 부족하신 분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이런 교육공동체의 그런 풍토를 만드시는 데에 교육청이 일조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또 잘 모르시

면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아, 이것이 적합하다, 아니다 하는 것들에 대한 판단도 내려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교육감 김천호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교육현장의 실상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자생적인 학부모 조직, 이런 분들을 대표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물론 그 분들이 대표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열린 생각을 하시리라 이런 생각을 갖고 앞서가는 생각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은, 여러 분들 말씀 중에 다른 아이들도 내집 아이 같이 생각한다, 그러면서 나는 봉사를 한다, 그리고 봉사 자체에 대해서 나는 삶의 의미를 찾는다, 이런 말씀을 전해 듣고, 제가 묻지도 않았을 때 그런 말씀을 교육감인 저에게 들려주시면서 굉장히 학교에 나와서 활동하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보람과 긍지를 느끼시는 아주 진솔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나라 교육풍토도 참 좋아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진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그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전부 다 해소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대에 나아감에 따라서 우리의 학부모님들의 수준도

참 좋아진다, 저는 희망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들도 기회 있을 때 그 대표님들 모임이라든지 또 학교운영위원회 다 학부모님들이 운영위원님들이 학부모의 대표 아니시겠습니까? 그 분들에게 잘 말씀을 올려서 학부모 계도를 자율적으로 스스로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서 모든 학생들이 정말로 그 학부모님들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와중에 모든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쪽의 이상적인 바람직한 쪽으로 나가도록 열심히 저희들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옥경 위원

고맙습니다.

실질적으로 돈 없어서 회장 나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풍토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봉사 차원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학부모들이 학교 일에 여러 가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 강구해 주신다는 교육감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학교안전공제회 문제가 좀 있는데요, 지금 학교에 천안초등학교 때문에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기도 하고 전국적인 문제점들이 분출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일반 학부모님들은 지금 학교안전공제회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

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회원으로 계신 분이 학교르 대표하시는 교장선생님이 다 회원으로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안내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학교에서 다쳤다, 이제 안경을 맞아가지고 눈이 굉장히 심하게 그랬는데도 학교 안전공제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한참 후에 육신각신 끝에 알게 된다든지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런 것들을 중간적인 과정 속에서는 학교안전공제회의 어떤 기능이나 중요성 같은 것들이 학년초에 모든 학부모님들에게 다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금들을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내고 있고요, 또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무슨 폐품을 판다든지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마련하는 경우도 있고, 도교육청에서 기금을 보전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지금 이것은 피해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데 안전공제회의 운영이나 또는 뭐랄까 판정하는 그 과정에서 매우 간접적인 형태로 학부모나 그 학생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치료비 계산서 학부모가 다 동의해서 연서해 가지고 이제 교장선생님이 신청한다 이럴 때, 그러면

만약에 이제 불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휴유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휴유증에 대한 것은 치료비 계산을 미리 할 수가 없고, 또 그 무슨 사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일 때 학부모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아이들에 대한 어떤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 통로가 많이 차단이 되어 있고요, 또 교장선생님들은 학교의 사고를 가능하면은 줄이려고 하십니다. 지난번에 화재 난 학교들도 보면은 피해액과 요청금액의 차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그것들이 지적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것은 단적으로 교장선생님이 대외적으로 학교 내의 어떤 문제점들을 정말 다 털어놓고 이렇게 끄집어 내놓지 않는다는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학교장 학교안전공제회 간의 그런 어떤 구도가 학교안전공제회, 학부모, 혹은 교사, 이런 구도로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이것이 전국적인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고, 어쩌면은 이것이 구조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제 충청북도교육청이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그러니까 뭐랄까 인식하고 또 그것을 바꿀 의향이 있으신가에 대한 어떤 그런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것을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인식이 지금 학부모들은 참여하기가 어려운 것이 교육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판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교장이 그것을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하세요. 그런데 답변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뭐 무리하게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수가 있겠죠, 조금 다쳤는데도 크게 보상을 해 달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전부 보상을 해 주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억울한 학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의사를 상황이나 이런 것이 억울하다는 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저는 이제 학부모들 중에서 조금 예외적인 그런 저기요, 다른 학부모님들은 그 상황 자체에 대한 설명 같은 것들도 참으로 객관적으로 설명하시기 어렵거든요. 이럴 때 그런 억울한 학부모님들을 뭐랄까 구제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들을 현행 제도 속에서는 이제 하기가 어렵겠다, 이래서 충청북도교육청 주요 임원들이 지금 여기에 공무원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 도에서부터 조금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바뀌어지기를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일단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학교수업 중에, 아니면 학교 생활 속에서 그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부모 입장으로는 국가를 믿고 보낸 가운데 어떠한 이유가 났든지간에 학교 있는 동안에 자녀가 어떤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에 여러 가지 서운한 마음은 이루 가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보상을 주고, 또 지도하시는 선생님이 안전하게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이 제도가 생겼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금전문제이다 보니까 또 피해자하고 국가측에서 주고자 받고자 하는 그 기준점이 항상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 다행히 저희들 같은 경우 그 소액에 대해서는 거의 교장선생님이 원하거나 물론 신청한 금액을 거의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도액이 1억 2,000만원 미만입니다만은 1억 2,000이 넘는 경비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 충족치 못하는 부모님들께서는 지금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심판위원회에 외부인사들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금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연초에나 아니면 연중 교원들 교육 중에 홍보를 우선은 적극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어떠한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교장선생님한테, 또 아니면은 또 교장선생님과 담임선생님 간의 갈등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청이나 아니면 도교육청에 직접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는 홍보까지를 곁해서 해 주고, 다만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보호하는 측면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선생님들은 안전하게 수업을 할 수 있고, 또 피해자들은 덜 서운한 방향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특히 제가 장애학생들이 있는 특수학교를 이제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보조교사 문제도 제가 심각하게 느꼈고, 교사 1인당 학생의 숫자가 너무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럴 때 감당이 잘 안 되겠더라구요. 그러면은 이제 사고가 일어날 것이 우려가 더 크고, 또 일단 일어나면 대형사고가 일어날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로 같은 것들도 그냥 있고 그런 것을 제가 봤는데요, 이런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 제가 그래서 교장선생님께 여쭙봤죠, 학생들 사고 많이 안나스가 그랬더니 별 문제 없다고 하시는데, 다 학교를 둘러보고 내려오는데 양호선생님을 한번 빌려고 그랬더니 학생이 사고

가 생겨서 급히 병원 간다고 쪽지를 써 붙이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이런 비밀비재한 일이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특히 그런 데서 생겨나는 문제점이 지금 어떤 구조적인 부족함, 이런 데서 생겨나는 것이라면 교장선생님이 자주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뭐랄까, 불이익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충분히 말씀해 주시고, 가능하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시되, 안되면은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정말 뭐랄까 가감없이 이런 것들이 좀 치료되고 그럴 수 있도록 마련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제도는 정관이라든지 또 규정은 반드시 바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커다란 흐름 속에서 제안드린 것인데 여전히 그런 어려움 같은 것들이 많으신 것 같고,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앞으로는 문제점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제기해 주시고 이렇게 해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일

진옥경 위원님 질문 마치신 거죠?

● 진옥경 위원

예

● 의장 이상일

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영용 위원 거수하여 발언 신청)

예, 성영용 위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영용 위원

보통질문이라기보다 학교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께 부탁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선학교에서 과학교육연구원에서 그 서버를 거기서 받아 쓰고 있는데 학생이나 교사들이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에는 다운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용량에 문제가 있는지 좀 점검을 하셔서 학생이나 교사들이 쓰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번 좀 살펴봐주시고, 두 번째는 향후 E-BOOK이 활용이 될 경우에 지금 교육과정 운영상에 있어서 단위 학교 내에서 독서교육이라든가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또한 창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이메일 형식으로 받아서 쓰는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큰 도움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포럼회사 같은 정보회사하고 연계해서 쓸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그러

니다.

이런 회사하고 같이 연계할 경우 개인정보 제출에 대한 한정된 방안을 연구해주시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뭐냐면은 학생 성명이라든가 학교명, 학년이라든가 반, 비밀번호, 이메일 정도, 이 정도 정보만 제공하고 뭐 집주소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별거 다 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인에 관한 것은 제외하고 이런 정보회사하고의 앞으로 계약이라든지 될 경우에는 좀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반창남

교육국장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성영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십분 저희가 연구 검토하고 조사하고 해서 일선 선생님들, 또 학생들이 학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일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규강 위원 거수하여 발언신청)

예, 고규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규강 위원

농진지역 학교에 대해서 교육감님에게 답변을 못들었습니다.

제조정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교육감 김천호**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성 위원님이 끝에 하셨기 때문에, 독서교육, 한 가지만, 아까도 독서교육 여러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못 드린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실상은 충청북도내에 사서교사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매괴여상, 지금은 매괴고등학교가 됐는데요 이게 실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둘 내리고 지금 교사 여섯 명 해서, 열 다섯 명 사서 임시직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돼서 60명이 사서 전문을 한 임시교사를 중심학교에 배치하려고 그러합니다. 욕심 같아서는 예산만 허락되면 전 학교에 한 사람씩 사서교사, 임시교사라도 배치를 해서 전담을 해서 교과활동에 독서서비스를 하도록 하는 것이 제 의지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고, 아까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 국장님 답변대로 상의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독서교육에 관심을 가져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농진지역 그거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부족하다고 그래서 보충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진지역 지침을 시행한 것이 1994년 10월 15일자 교육감 지침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그 지침에 의해서 지

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다만, 아까 지적하신 대로 많은 학교를 농진지역 하면은 좋겠습니다. 지정되는 학교는 좋지만 또 상대적으로 비지정, 지정에서 제외되는 학교는 그만큼 소외감을 갖고 거기에 근무하는 교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계셨던 대로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듣고 저도 공감했습니다. 지역교육의 실태를 더 정확하게 실상을 파악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정말로 심각한, 학교가, 이렇게 발견이 될 때는 좀 어렵더라도 농진지역 학교로 재지정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과정에서 아까 참여행정 말씀을 올린 것처럼 관계되는 많은 교육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지역교육장의 의견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역교육 관계자들의 의견, 그리고 도 단위 관계자들의 의견, 특히 교육위원회 의장님, 부의장님, 위원님들의 의견도 절대적으로 존중을 해서 총체적인 의견이 수렴돼서 그 말씀된 의견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일**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보충질문을 더 하실 위원이 안계시

[제153회-제3차 본회의]

므로 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을 종결하겠
습니다.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심도있게 질문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
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의껏 답
변해 주신 김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
행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에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
고 집행청에서 답변한 사항들이 교육시책
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 및 제153
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
포합니다.

(17시 50분 폐회)

0 출석위원 : 7명

의장 이상일, 부의장 고규강,

위원 김남훈, 성영용, 송대현, 이기수,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11명

교육감, 김천호, 교육국장 반창남,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실 신건환, 초등교육과장 정무,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 이기석, 총무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 부 록

- ▶ 서면답변서(별첨 2)

제15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3. 6. .

의 장 이 상 일 이 상 일

위 원 고 규 강 고 규 강

위 원 김 남 훈 김 남 훈

의사국장 이 상 기 이 상 기

(별첨 1)

議 事 日 程 (案)

第153回 忠淸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2003. 5. 26. ~ 5. 29.(4日間)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5월 26일(월) (15:00)	<input type="checkbox"/> 개 회 식 [제1차 본회의] 1. 제15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 기 : 2003. 5. 26.~5. 29.(4일간) 2. 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월 27일(화) (10:00)	[제2차 본회의]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5월 28일(수) (09:00)	<input type="checkbox"/> 서해수련원 현장방문	본회의 휴회
5월 29일(목) (14:00)	[제3차 본회의]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집행청 답변) <input type="checkbox"/> 폐 회	

서 면 답 변 서

위원명	자 료 요 구 명
김 남 훈	1. 시·군별 복식학급 운영 학교수, 학급수, 학년별 학생수 2. 2002년.9.1. 기준 학교별 지정종목 현황
성 영 용	1. 2002년도 영재학급 지도자료 2. 2002년 10. 21. 이후 현재까지 시읍면 중심학교를 선호할 수 있도록 가산점 등 인센티브 제공한 실적 3. 청소년지도교사 인센티브 제공여부 및 타 시·도 시행 자료
진 옥 경	1. 시·군별 폐지학교 이용현황
송 대 현	1. 하절기 합동생활지도 제도에 대한 결과 분석 자료 및 개선방안 2. 2002년도 치코대학 여학연수시 학생 교사의 주말여행 및 문화체험 희망을 3. 치코대학 여학연수 이수자에 대한 일반연수 효력 인정근거 또는 관계서류

2003학년도 복식수업학교 현황

교육청	구분	2003학년도				2002년도			비교증감			
		학교수	3복식		2복식		학교수	학생	학급수	학교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						
청주	본교								0	0	0	
	분교장	1			17	2	1	23	2	0	-6	0
	계	1	0	0	17	2	1	23	2	0	-6	0
충주	본교	4			67	6	3	31	3	1	36	3
	분교장	2			44	5	2	44	5	0	0	0
	계	6	0	0	111	11	5	75	8	1	36	3
제천	본교	1			14	1				1	14	1
	분교장									0	0	0
	계	1	0	0	14	1	0	-	-	1	14	1
청원	본교	2			25	2	1	13	1	1	12	1
	분교장	8			177	20	9	190	20	-1	-13	0
	계	10	0	0	202	22	10	203	21	0	-1	1
보은	본교	4			89	8	4	104	9	0	-15	-1
	분교장	2			33	5	3	43	6	-1	-10	-1
	계	6	0	0	122	13	7	147	15	-1	-25	-2
옥천	본교	1			25	2	1	11	1	0	14	1
	분교장	4			79	10	4	85	10	0	-6	0
	계	5	0	0	104	12	5	96	11	0	8	1
영동	본교	1			21	2	1	10	1	0	11	1
	분교장									0	0	0
	계	1	0	0	21	2	1	10	1	0	11	1
진천	본교	1			24	2	1	25	2	0	-1	0
	분교장									0	-1	0
	계	1	0	0	24	2	1	25	2	0	-1	0
괴산	본교	2			39	3	1	9	1	1	30	2
	분교장	5			103	13	5	124	12	0	-21	1
	계	7	0	0	142	16	6	133	13	1	9	3
음성	본교	1			8	1	1	23	2	0	-15	-1
	분교장	1			30	3	1	32	3	0	-2	0
	계	2	0	0	38	4	2	55	5	0	-17	-1
단양	본교	2			21	2	2	24	2	0	-3	0
	분교장	5			93	14	5	80	11	0	13	3
	계	7	0	0	114	16	7	104	13	0	10	3
계	본교	18	0	0	309	27	14	225	20	4	84	7
	분교장	29	0	0	600	74	31	646	71	-2	-46	3
	계	47	0	0	909	101	45	871	91	2	38	10

2003학년도 복식학급 편성현황

교육청	학교명	학년별학생수							2복식		단식		학급계
		1	2	3	4	5	6	계	학생	학급	학생	학급	
청주	현양원	1	8	4	10	7	5	35	17	2	18	2	4
	분교계	1	8	4	10	7	5	35	17	2	18	2	4
충주	가흥초	2	6	12	10	12	8	50	8	1	42	4	5
충주	목계초	4	5	6	3	8	9	35	18	2	17	2	4
	소태초	10	7	11	7	13	13	61	14	1	47	4	5
	야동초	7	4	8	11	10	8	48	27	2	21	2	4
	소계	23	22	37	31	43	38	194	67	6	127	12	18
	노은-수상	5	11	4	5	9	6	40	20	2	20	2	4
	달천-매현	1	2	3	8	5	5	24	24	3			3
	소계	6	13	7	13	14	11	64	44	5	20	2	7
	합계	29	35	44	44	57	49	258	111	11	147	14	25
	제천	명지초	11	7	12	10	11	7	58	14	1	44	4
소계		11	7	12	10	11	7	58	14	1	44	4	5
청원	남성초	6	11	15	11	6	5	54	11	1	43	4	5
	각리초	11	7	10	7	9	7	51	14	1	37	4	5
	소계	17	18	25	18	15	12	105	25	2	80	8	10
	남성-갈산	3	1	5	3	5	3	20	20	3			3
	미원-금관	6	5	6	5	7	4	33	33	3			3
	가덕-상야		2	2	3		4	11	11	2			2
	남일-두산	7	8	5	9	2	6	37	20	2	17	2	4
	문의-도원	8	7	6	3	9	3	36	19	2	17	2	4
	옥산-소로	2	6	10	5	5	8	36	18	2	18	2	4
	오창-가좌	1	2	6	3	5	5	22	22	3			3
	오창-유리	7	5	5	5	5	7	34	34	3			3
	소계	34	36	45	36	38	40	229	177	20	52	6	26
	합계	51	54	70	54	53	52	334	202	22	132	14	36
	보은	삼승초	7	5	3	6	10	10	41	21	2	20	2
세중초		7	0	6	5	8	7	33	26	2	7	1	3
수한초		5	8	7	10	6	12	48	26	2	22	2	4
회남초		4	2	8		6	4	24	16	2	8	1	3
소계		23	15	24	21	30	33	146	89	8	57	6	14
수정-법주		4	1	4	5		4	18	14	2	4	1	3
수정-삼가		3	4	3	3	3	3	19	19	3			3
소계		7	5	7	8	3	7	37	33	5	4	1	6
합계		30	20	31	29	33	40	183	122	13	61	7	20

교육청	학교명	학년별학생수											
		1	2	3	4	5	6	계	2복식		단식		학급계
									학생	학급	학생	학급	
옥천	대성초	8	11	6	13	6	5	49	25	2	24	2	4
	소계	8	11	6	13	6	5	49	25	2	24	2	4
	청성-능월	3	7	4	5	10		29	19	2	10	1	3
	동이-우산	3	1	4	3	3	5	19	19	3			3
	이원-지란	4	7	8	10	11	7	47	26	2	21	2	4
	증악-대정	4	1	4	1	2	3	15	15	3			3
	소계	14	16	20	19	26	15	110	79	10	31	3	13
	합계	22	27	26	32	32	20	159	104	12	55	5	17
영동	미봉초	3	10	4	12	6	8	43	21	2	22	2	4
	소계	3	10	4	12	6	8	43	21	2	22	2	4
진천	삼수-매산	4	6	6	8	9	8	41	24	2	17	2	4
	분교계	4	6	6	8	9	8	41	24	2	17	2	4
괴산	장연초	7	6	6	7	14	5	45	24	2	21	2	4
	죽리초	9	10	7	11	8	20	65	15	1	50	4	5
	소계	16	16	13	18	22	25	110	39	3	71	6	9
	철성-외사	7	4	4	3	7	7	32	32	3			3
	문광-덕평	4	5	5	16	6	6	42	20	2	22	2	4
	청천-신월	3	2	3	7	4	3	22	22	3			3
	장연-광진	5	7	5	8	9	7	41	13	2	12	2	4
	보광-화곡	2	7	3	8	4	4	28	16	3			3
	소계	21	25	20	42	30	27	165	103	13	34	4	17
	합계	37	41	33	60	52	52	275	142	16	105	10	26
음성	능산초	9	4	11	6	4	15	49	8	1	41	4	5
	남신-덕생	2	5	6	4	7	6	30	30	3			3
	합계	11	9	17	10	11	21	79	38	4	41	4	8
단양	가곡초	9	4	12	7	13	9	54	11	1	43	4	5
	대가초	4	9	9	6	14	7	49	10	1	39	4	5
	소계	13	13	21	13	27	16	103	21	2	82	8	10
	단천-가산	3	7	2	7	2	4	25	25	3			3
	대강-장정	5	6	1	2	4	4	22	22	3			3
	가곡-보발	1	3	2	1	7	3	17	17	3			3
	가곡-대곡	4	2	6	3	2	7	24	24	3			3
	영춘-의봉	1			1	1	2	5	5	2			2
	소계	14	18	11	14	16	20	93	93	14	0	0	14
	합계	27	31	32	27	43	36	196	114	16	82	8	24
총계	본교계	123	116	153	142	164	159	857	309	27	548	52	79
	분교계	103	132	126	154	150	139	804	600	74	176	20	94
계		226	248	279	296	314	298	1661	909	101	724	72	173

2003. 수용시설 부족에 따른 상향편성학교현황

지역	학교명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비고	
청주	청남초	학생수	196	194	196	206	203	205	1,200		
		학급수	5	5	5	5	5	6	31	10	
		급당평균	39.2	38.8	39.2	41.2	40.6	34.2	38.7		
	덕성초	학생수	408	424	414	396	436	421	2,499	2005 사천초	
		학급수	10	10	10	10	10	10	60	50	신설분리
		급당평균	40.8	42.4	41.4	39.6	43.6	42.1	41.7		
	울람초	학생수	370	351	388	389	414	423	2,335	2004 울봉초	
		학급수	9	9	10	10	11	11	60	9	신설분리
		급당평균	41.1	39.0	38.8	38.9	37.6	38.5	38.9		
	상당초	학생수	317	328	369	367	320	317	2,018		
		학급수	8	8	10	10	8	8	52	8	
		급당평균	39.6	41.0	36.9	36.7	40.0	39.6	38.8		
	원봉초	학생수	268	261	311	294	301	297	1,732		
		학급수	7	7	8	7	7	7	43	21	
		급당평균	38.3	37.3	38.9	42.0	43.0	42.4	40.3		
	원평초	학생수	335	297	292	281	251	251	1,707		
		학급수	8	7	7	6	6	6	40	40	2학기 4학년 학급증설
		급당평균	41.9	42.4	41.7	46.8	41.8	41.8	42.7		(증축완공)
남평초	학생수	345	319	335	311	288	274	1,872			
	학급수	8	8	8	7	7	7	45	30	2학기 1,4학년 학급증설	
	급당평균	43.1	39.9	41.9	44.4	41.1	39.1	41.6		(증축완공)	
진흥초	학생수	357	299	309	284	221	203	1,673			
	학급수	9	8	8	7	6	6	44	7		
	급당평균	39.7	37.4	38.6	40.6	36.8	33.8	38.0			
충주	중앙초	학생수	302	321	322	333	338	339	1,955	2005. 금릉초	
		학급수	7	8	8	8	8	8	47	47	신설분리
		급당평균	43.1	40.1	40.3	41.6	42.3	42.4	41.6		
칠금초	학생수	285	296	236	269	276	234	1,596			
	학급수	7	8	6	7	7	6	41	7		
	급당평균	40.7	37.0	39.3	38.4	39.4	39.0	38.9			

상향편성 학교수 10교
상향편성 학급수

229

2003학년도 복식학급 운영현황

교육청	구분	학교수	학급수	학년별학생수							비 고			
				계	1	2	3	4	5	6	단식		학급계	학생수
											학생	학급		
청주	본 교			0									0	0
	분교장	1	2	17	1		4		7	5	18	2	4	35
	계	1	2	17	1	0	4	0	7	5	18	2	4	35
충주	본 교	4	6	67	13	22	14	10		8	127	12	18	194
	분교장	2	5	44	6	2	7	13	5	11	20	2	7	64
	계	6	11	111	19	24	21	23	5	19	147	14	25	258
제천	본 교	1	1	14		7				7	44	4	5	58
	분교장			0									0	0
	계	1	1	14	0	7	0	0	0	7	44	4	5	58
청원	본 교	2	2	25		7		7	6	5	80	8	10	105
	분교장	8	20	177	26	28	35	27	29	32	52	6	26	229
	계	10	22	202	26	35	35	34	35	37	132	14	36	334
보은	본 교	4	8	89	23	15	16	11	20	4	57	6	14	146
	분교장	2	5	33	7	5	7	8	3	3	4	1	6	37
	계	6	13	122	30	20	23	19	23	7	61	7	20	183
옥천	본 교	1	2	25	8		6		6	5	24	2	4	49
	분교장	4	10	79	14	16	20	9	5	15	31	3	13	110
	계	5	12	104	22	16	26	9	11	20	55	5	17	159
영동	본 교	1	2	21	3		4		6	8	22	2	4	43
	분교장			0									0	0
	계	1	2	21	3	0	4	0	6	8	22	2	4	43
진천	본 교			0									0	0
	분교장	1	2	24	4	6	6	8			17	2	4	41
	계	1	2	24	4	6	6	8	0	0	17	2	4	41
괴산	본 교	2	3	39	7	6	13		8	5	71	6	9	110
	분교장	5	13	127	21	25	20	26	21	14	38	4	17	165
	계	7	16	166	28	31	33	26	29	19	109	10	26	275
음성	본 교	1	1	8		4			4		41	4	5	49
	분교장	1	3	30	2	5	6	4	7	6			3	30
	계	2	4	38	2	9	6	4	11	6	41	4	8	79
단양	본 교	2	2	21	4	4		13			82	8	10	103
	분교장	5	14	93	14	18	11	14	16	20			14	93
	계	7	16	114	18	22	11	27	16	20	82	8	24	196
합계	본 교	18	27	309	58	65	53	41	50	42	548	52	79	857
	분교장	29	74	624	95	105	116	109	93	106	180	20	94	804
총 계		47	101	933	153	170	169	150	143	148	728	72	173	1661

체육특기 지정종목 육성학교 현황표

2002. 09. 01. 현재

충청북도교육청

종 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총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수영	18	19	3	3	2	2	23	24	47
축구	10	4	7	2	3	1	20	7	27
야구	4		2		2		8		8
테니스	11	10	6	5	4	2	21	17	38
정구	7	6	5	3	3	3	15	12	27
농구	4	3	2	2	2	2	8	7	15
배구	4	4	2	2	2	1	8	7	15
탁구	11	9	4	3	2	1	17	13	30
핸드볼	2	4	2	3	1	1	5	8	13
럭비			2		1		3		3
사이클			5	2	4	1	9	3	12
복싱			5		7		12		12
레슬링			7		3		10		10
역도			9	4	5	1	14	5	19
씨름	19		13		3		35		35
유도	8	1	4	2	4	2	16	5	21
검도	9		4		4		17		17
양궁	5	5	5	5	2	3	12	13	25
사격			6	6	4	4	10	10	20
체조	5	3	2	4	1	2	8	9	17
하키			2	2	2	2	4	4	8
회상			2	3	2	2	4	5	9
헤드인턴	5	7	4	5	2	2	11	14	25
태권도	27	7	18	3	12	4	57	14	71
조정			1	1	1	1	2	2	4
줄리	11	11	4	4	3	2	18	17	35
골메5종			4		1		5		5
카누			3	1	3	1	6	2	8
스키	3	3	1	1	2	1	6	5	11
요트					1		1		1
볼링					1	1	1	1	2
골프			1	1	2	2	3	3	6
빙상	5	5	1	1	2	1	8	7	15
승마					2	2	2	2	4
시화양극보			1		2		3		3
보너빌딩					2		2		2
무용					1	1	1	1	2
소 계	168	101	137	68	100	48	405	217	622
총 계	269		205		148		622		622

지정종목 재조정 전·후 비교

2002.09.01 현재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청	초 등 학 교		중 학 교		계		비 고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청 주	134	118	77	72	211	190	-21
충 주	41	40	36	30	77	70	-7
제 천	27	27	22	19	49	46	-3
청 원	17	16	13	15	30	31	+1
보 은	9	8	8	6	17	14	-3
옥 천	7	7	8	7	15	14	-1
영 동	8	8	9	8	17	16	-1
진 천	12	13	12	11	24	24	0
괴 산	11	9	21	16	32	25	-7
음 성	14	12	17	15	31	27	-4
단 양	11	11	6	6	17	17	0
소 계	291	269	229	205	520	474	-46
고 등 학 교	인문계·특수목적고		실업계고등학교		계		비 고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104	96	67	52	171	148	-23
총 계 초+중+고					691	622	-69

서면 답변서

성명용 위원

관련부서 : 초등교육과

질 의
요 지

2002년도 영재학급 지도자료

답 변

“ 내용 별도 송부 ”

- 영재 심화 교수-학습자료
 - 초등학교 4·5·6학년용 수학
 - 초등학교 4·5·6학년용 과학
 - 중학교 1·2·3학년용 수학
 - 중학교 1·2·3학년용 과학

작성자 : 직) 장 학 사

성명) 안 호 태

서면 답변서

성 영 용 위원

관련부서 : 초등교육과

질 의
요 지

2002. 10. 21이후 현재까지 시·읍 단위 중심학교를 선호할 수 있도록 가산점 등 인센티브 제공 관련규정을 적용한 실적

답 변

○ 전 교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실적

1. 교육공무원 승진 가산점 제도 개선 적용

가. 근거 : 교육공무원승진규정중개정령(대통령령 제17635호, '02.06.25)

나. 적용 : 2004. 1. 1자로 본 도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 예정임

다. 내용 : 자격연수·직무연수성적 평정 방법 개선/ 자격연수성적평정점 급간 조정

2. 연구학교 확대 지정 운영

가. 연구학교 지정 현황

(1) 총 지정학교수 : 2002학년도 - 105개교 / 2003학년도 - 113개교

(2) 현황

(가) 시지역 : 초등 - 14.2% 감소 중등 - 17.6% 증가 총 6.9% 증가

(나) 읍지역 : 초등 - 9.1% 증가 중등 - 5.6% 증가 총 6.9% 증가

구 분	시 단위 지역			읍 단위 지역			계		
	초등(%)	중등(%)	계(%)	초등(%)	중등(%)	계(%)	초등(%)	중등(%)	계(%)
2002	19(47.5)	21(52.5)	40(100)	10(37.0)	17(62.9)	27	29	38	67
2003	16(34.8)	30(65.2)	46(100)	12(38.7)	19(61.3)	31	28	49	77
차	△5(14.2)	9 (17.6)	6 (6.9)	2 (9.1)	2 (5.6)	4 (6.9)	△ 1	11	10

나. 추진 방향 : 시·읍 지역 근무교사의 사기 진작책으로 절진적 확대 지정

○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 한 실적

1. 전국 시·도 인사 담당자 회의 시 건의

가. 시기 : 2003. 4. 11 - 12, 제주도 (탐라교육원)

나. 내용 : 교육공무원 인사 관련 규정 개정 및 교원 우대에 대한 대책 협의 등

다. 결과 :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하였음

작성자 : 직) 장 학 사

성명) 신 남 철

서면 답변서

성 영 용 위원

관련부서 : 평생교육체육과

결 의 요 지	청소년 지도교사 인센티브 제공 여부 및 타 시·도 시행 자료
------------	--------------------------------------

답 변

- 매년 청소년단체활동 유공 지도교사에 대한 교육감 표창수여
(2002년도 13개 단체 32명 표창)
-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대상 『청소년수련활동 분야 연구대회』
개최를 통한 연구가산점 부여
- 청소년단체 주관 교원 특수분야 직무연수 시 지도교사에 대한
연수 수강 우선권
<타시·도 시행 자료>
- 청소년단체 지도교사에 대한 승진가산점 부여
(경기도교육청 시행)
- 단체활동 지도교사 연구논문 가산점 부여(8개 시·도)

작성자 : 직) 장학사

성명) 조 한 성

□ 시군별 폐지학교 이용 현황(2003. 5.23일 현재)

지역	번호	폐교명	분교명	활용구분	활용도	대부기간	대부자	
청주	1	현암초		자체활용	롤러장			
청주		1교						
충주	2	추평초		대부	전원학교	03.1.1~07.12.31	이동영	
	3	창암초		대부	자재창고	02.9.1~03.8.31	이수명	
	4	세성초	공이분교	대부	농촌체험장	02.10.3~03.10.2	김석영	
	5	세성초	항산분교	대부	도자기작업실	02.10.1~03.9.30	홍영주	
	6	수회초	팔봉분교	대부	실습농장	02.6.28~03.6.27	조계묵	
	7	양성초	영죽분교	대부	수련원	03.1.31~08.1.30	유태근	
	8	동량초	서운분교	대부	명상수련원	02.10.25~05.10.24	신웅철	
	9	산척초	명서분교	대부	수련원	02.2.20~07.2.19	지용환	
	10	소태초	덕은분교	대부	수련원	03.4.1~08.3.31	김성심	
	11	성남초	동신분교	대부	당뇨병동	02.5.18~05.5.17	김경희	
	12	노은초	수룡분교	대부	축구교실	02.2.26~05.2.25	강일남	
	13	복성초		대부	목공예작업실	01.11.1~04.10.31	황광구	
	14	강천초	단암분교	대부	수련원	00.9.1~05.8.31	유홍상	
	15	동량초	하천분교	대부	체육연수원	03.4.19~04.4.18	이성수	
		16	성남초	증인분교	자체활용	수련원		
	충주	15교(대부14교 자체1교)						
제천	17	봉양초	봉남분교	대부	문화예술학교	01.10.1~06.9.30	전윤식	
	18	공전초		대부	가구창고	03.1.23~08.1.22	리광식외1	
	19	수산초	대전분교	대부	청소년수련원	03.5.10~04.05.09	이수년	
	20	한수중		대부	어학연수원	03.4.01~08.03.31	유준식	
	21	남당초	삼선분교	대부	증기보관	02.10.1~03.9.30	대림건기	
	22	송학초	송한분교	대부	교회수련원	02.1.1~03.12.31	김홍광	
	23	두학초	자작분교	대부	자재보관	03.1.1~03.12.31	중앙석재	
	24	금성초	장선분교	대부	장비보관	01.12.1~04.11.31	제천증기	
	25	금성초	중전분교	대부	자원재생공장	99.2.8~03.12.31	재생공사	
	26	양화초		대부	지적박물관	02.1.1~03.12.31	이진호	
	27	청풍초	양평분교	대부	항공학습장	02.11.1~05.10.31	곽승렬	
	28	덕산초	월악분교	대부	청소년수련원	02.1.1~06.12.31	박남병	
	29	유덕초	복평분교	대부	기수련원	02.6.15~03.06.14	김찬규	
	30	수산초	추동분교	대부	증기주차장	02.11.6~05.11.5	김정익	
	제천	31	청풍초	학현분교	자체활용	학생야영장		

□ 시군별 폐지학교 이용 현황(2003. 5.23일 현재)

지역	번호	폐교명	분교명	활용구분	활용도	대부기간	대부자
제천	15교(대부 14교, 자체1교)						
청원	32	미원초	용곡분교	대부	청소년수련원	02.9.24~07.9.23	최봉명
	33	미원초	중암분교	대부	미생물연구소	01.6.10~06.6.9	박한오
	34	미원초	기암분교	대부	가구공장	02.4.23~07.4.22	김명호
	35	옥산초	호죽분교	대부	자연식물연구	02.1.8~05.1.7	최수영
	36	문의초	구룡분교	대부	전통장생산	03.3.11~08.3.10	정상희
	37	만수초	공북분교	대부	건강음료사업	03.3.27~04.3.26	김기태
	38	미원초	운암분교	대부	국선도교육원	03.5.6~04.5.5	최락규
	39	남이초	구암분교	자체활용	특수학교		
	청원	8교(대부7교, 자체1교)					
보은	40	보덕초		대부	청소년수련원	02.5.3~05.5.2	배영환
	41	삼산초	중초분교	대부	자동판매기개발	03.3.27~04.3.26	김인석
	42	삼산초	동정분교	대부	향토미술박물관	02.6.19~03.6.18	허유외1
	43	수정초	북암분교	대부	요가수련원	02.5.15~05.5.14	유관숙
	44	내북초	이식분교	대부	학습수련원	02.6.13~05.6.12	이익중
	45	회남초	법수분교	대부	청소년수련원	02.8.11~03.8.10	최용덕
	46	회남초	분저분교	대부	목조건축교육	03.1.1~03.12.31	엄규생
	47	산외초	산대분교	대부	교회수련원	02.9.16~03.9.15	배영도
	48	관기초	기대분교	대부	황토양어장	01.12.11~03.12.10	이경래
	49	회인초	회동분교	대부	직원연수원	02.9.18~03.9.17	하동수
	50	관기초	적암분교	대부	고속도로현장사무 실	03.4.10~04.4.09	홍만의
	51	내북초	이원분교	대부	교회수련원	02.9.2~03.9.1	윤석호
	52	내북초	아곡분교	대부	예술과학원	02.12.12~03.12.11	김문경
	53	산외초	장갑분교	대부	청소년학습장	02.3.1~05.2.28	김영희
	54	탄부초	사직분교	대부	고속도로사무소	02.3.1~07.2.28	송용로
보은	5교						
옥천	55	죽향초	군북분교	대부	미술학습장	02.1.1~05.12.31	권이혁
	56	동이초	청마분교	대부	심신수련원	02.2.9~05.2.8	김문성
	57	동이중		대부	무료노인양노원	03.4.23~03.12.31	조영희
	58	안내초	용촌분교	대부	농산물가공	02.3.1~05.2.28	유상완
	59	청성초	신서분교	대부	버섯재배	02.2.18~05.2.17	최용
	60	청산초	예곡분교	대부	천연염색활동	01.9.20~03.9.20	전용익
옥천	61	청산초	대월분교	대부	직원연수원	01.5.14~06.5.13	조영옥

□ 시군별 폐지학교 이용 현황(2003. 5.23일 현재)

지역	번호	폐교명	분교명	활용구분	활용도	대부기간	대부자
옥천		7교					
영동	62	용산초		대부	전통식품제조	02.10.7~07.10.6	안화정
	63	천덕초		대부	원목공예제작	02.10.1~07.9.30	황장성
	64	범화초		대부	국산도법연구회	02.3.1~07.2.28	모경숙
	65	학산초	봉산분교	대부	연수원	02.10.17~07.10.16	김승현
	66	영동초	화신분교	대부	통합생산공장	02.11.16~07.11.15	주행석
	67	부상초		대부	도예학습원	03.1.1~07.12.31	박대우
	68	추풍령초	신안분교	대부	환경연구원	02.10.7~07.10.6	김치산
	69	상촌초	물한분교	자체활용	야영장		
	70	상촌초	삼봉분교	대부	분재.화훼연구	03.1.1~07.12.31	최승영
	71	상촌초	대해분교	대부	청소년수련원	03.1.1~07.12.31	옥영경
	72	상촌초	황학분교	대부	교육및연구시설	02.9.1~07.8.31	원태진
	73	미봉초	구강분교	대부	태아교육수련	02.6.7~07.6.6	최낙규
	74	용화초	자계분교	대부	예술창작촌	02.9.5~07.9.4	박창호
	75	양산초	천태분교	대부	수련원	02.10.16~07.10.15	홍성빈
	76	화곡초		대부	농산물가공	02.9.7~07.9.6	윤병태
	영동	15교(대부 14교 자체 1교)					
진천	77	백곡초	성대분교	대부	골프연수원	03.1.1~03.12.31	이신훈
	78	신덕초		대부	도자기학습장	03.1.1~03.12.31	이성기
	79	성암초	연곡분교	대부	미술창작교실	03.3.1~04.12.31	정창훈
	80	문백초	은탄분교	대부	미술수련장	03.1.1~03.12.31	김형택
	81	구정초	오상분교	대부	전통장제조	03.2.19 ~ 05.12.31	김근실
진천	5교						
괴산	82	장연초	장풍분교	대부	금연금주교육	01.6.1~06.5.31	박우관
	83	어룡초		대부	야영장	01.8.6~06.8.5	박석남
	84	명덕초	제월분교	대부	천연염색활동	01.11.1 ~ 06.10.31	김윤철
	85	신기초		대부	건설장비보관	03.1.1 ~ 03.12.31	갈산실업
	86	연풍초	신평분교	대부	자재야적장	03.1.1 ~ 03.12.31	신공토건
	87	칠성초	쌍곡분교	자체활용	교직원휴양소		
	88	외사초	갈론분교	대부	환경체학교육	02.9.1~07.8.31	한국환경
	89	어룡초	대후분교	대부	된장공장	03.1.1 ~ 03.12.31	지찬오
	90	백봉초	운곡분교	대부	농업교육장	03.1.1 ~ 03.12.31	한국자연
	91	소수초	광신분교	대부	페비닐보관	03.1.1 ~ 03.12.31	재생공사

□ 시군별 폐지학교 이용 현황(2003. 5.23일 현재)

지역	번호	폐교명	분교명	활용구분	활용도	대부기간	대부자
괴산	92	송면초	관평분교	대부	버섯재배	02.3.17~07.3.16	황대섭
	93	보광초	백마분교	대부	전자제품생산	01.7.11~06.7.10	우진산전
	94	오수초		대부	포장공장	01.6.1~06.5.31	박종천
괴산	13교(대부12교, 자체1교)						
음성	95	원남초	문암분교	대부	민속자료전시	00.10.8 ~ 04.10.7	남기석
	96	생극초	관성분교	대부	한과제조업	01.1.1~03.12.31	김갑숙
	97	생극초	오생분교	대부	버섯재배	02.1.1 ~ 04.12.31	이경순
	98	감곡초	상평분교	대부	청소년야영장	01.4.13~06.4.12	추양호
음성		4교					
단양	99	단양초	금곡분교	대부	어린이집	02.11.7 ~ 03.11.6	허강대
	100	단양초	노동분교	대부	대중음악학교	02.1.1~04.12.31	신중현
	101	상진초	적성분교	대부	고서전시판매	02.10.1 ~ 05.9.31	이선명
	102	영춘초	동대분교	대부	기업체연수	02.1.31~05.1.30	권태웅
	103	단천초	두항분교	대부	청소년수련원	03.1.1~03.12.31	김성수
	104	대강초	황정분교	대부	전통목공예	02.1.1~02.12.31	박문수
	105	장정초	울산분교	대부	체험학습장	02.9.25~05.9.24	김영수
	106	별방초	유암분교	대부	화장품작업장	02.1.1~04.12.31	최병화
	107	별방초	사지원분교	대부	체험학습장	02.10.15~05.10.14	최병석
	108	어상천초	연곡분교	대부	체험학습장	02.6.14~03.6.13	한상미
	109	어상천초	덕문곡분교	대부	농작물재배	03.1.1 ~ 03.12.31	이중희
	110	도담초		대부	잔디연구	02.10.1 ~ 03.9.31	곽무생
111	매포초	여천분교	대부	직원연수원	03.1.1 ~ 03.12.31	성신양희	
112	어상천초	선암분교	대부	직원연수원	03.1.24 ~ 04.1.23	배형순	
단양		1교					
합계	142교(대부106교, 자체36교)						

서면 답변서

송대현 위원

관련부서 : 중등교육과

질 의	- 하절기 합동생활지도 제도에 대한 결과분석 자료
요 지	- 하절기 합동생활지도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

답 변

2002년도 하절기 합동생활지도 운영현황 분석

1. 여름방학 기간 중 지역별로 적게는 25일에서 많게는 40일간에 걸쳐 740명의 교사가 합동 생활지도에 참가함
2. 합동 생활지도 대상 지역은 주로 생활지도 취약지, 유원지, 관광지 등임
3. 합동 생활지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주요 내용은 수상안전 사고예방, 각종 폭력예방, 학생 비행 사전 방지 및 선도, 교통사고 예방,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단속, 유흥업소 아르바이트 단속, 농촌 폐가 등에서의 퇴폐행위 예방, 오토바이나 차량 운전 금지, 남녀 혼숙캠핑 단속, 유원지 자연훼손 방지, 불건전한 정보 유통 단속 등으로 학생들의 안전과 건전한 청소년 문화 형성과 직결되는 교육문제들임
4. 합동 생활지도는 단속보다는 예방 및 선도위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으로써 472명의 학생을 선도한 것으로 나타남

효 과

1. 각종 안전사고 및 학생 비행에 대한 경각심 제고로 안전사고 및 탈선 예방

2. 휴가 중에 학생들이 많이 가는 지역을 중점 순회 지도함으로써 방심할 수 있는 마음과 행동에 경각심을 심어주어 학생의 본분을 벗어날 수 있는 여건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음

개선방안

1. 보다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2.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 확보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필요
3. 합동 생활지도 참여 교사에 대한 지도수당의 현실화
4. 지도교사에게 유흥업소를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작성자 : 직) 장학관

성명) 하계성

(참고자료1)

□ 2002년도 하절기 합동생활지도 운영현황

지역	기간	장소	참여자 교사수	선도 인원수	비고
청주지역	2002.07.22.-08.26.(25일간)	솔밭공원 및 주변일대	65	75	
충주지역	2003.07.5/6/12/13/ 2003.07.19.-08.23. (40일간)	단월강수욕장	80	.	
제천지역	2002.07.22.-08.29(39일간)	탁사정 일원	78	33	
청원지역	2002.07.22.-08.21.(29일간)	금관숲, 도당산	58	52	
보은지역	2003.07.21 ~ 08.24(35일간)	속리산 국립공원 일원	70	11	
옥천지역	2002.07.21-08.29(40일간)	금강유원지, 장계리 군민관광단지 금천리 장용산 휴양림	46	30	
영동지역	2002.07.22-08.18(28일간)	송호리유원지	56	12	
진천지역	2002.07.23 -08.28(37일간)	백곡저수지 진천읍내 취락지역	74	.	
괴산지역	2002.07.22-08.24(34일간)	괴강,화양동,쌍곡,목도강	89	7	
음성지역	2002.07.24~08.30(32일간)	음성군 일원	64	90	
단양지역	2002.07.25.-08.23.(30일간)	천동다리안 관광지내	60	162	
계	최단기 25일 - 최장기 40일		740	472	

서면 답변서

송 대 현 위원

관련부서 : 중등교육과

질 의 요 지	2002년도 치코대학 어학연수 시 주말여행 및 문화체 험을 희망한 학생 및 교사 희망을
------------	---

답 변

- 2002학년도 미국 치코대학 어학연수 인원은 교사 30명, 학생 30명, 총 60명이었으며,
- 주말여행은 연수단원 모두가 희망하여 60명 전원이 참여하였고,
- 문화체험 여행은 교사의 경우 전원이 희망하여 참여하였으나, 학생의 경우 희망자가 없어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작성자 : 직) 장학관

성명) 손 영 철

서면 답변서

송 대 헌 위원

관련부서 : 중등교육과

질 의
요 지

치코대학 어학연수 이수자에 대한 일반연수 효력 인정
근거 또는 관계서류

답 변

○ 치코대학 어학연수는 1988년부터 충청북도교육청과 치코대학 재단 간의 협약에 의해 매년 여름 방학 중 실시하는 것으로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5조(지정연수)와 교원연수·연구실적 학점화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연수이수학점인정대상자)에 의거 연수 이수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5조(지정연수) 교육감은 연수원이 실시할 수 없는 특수한 분야에 관한 연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한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연수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작성자 : 직) 장학관

성명) 손 영 철

